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416-9202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 구독신청 02)2004-8211~2 | buddhanews.com |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1월 9일(음력 12월 2일) 수요일 (주간) 제661 호

"화합하고 정진하라"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아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1월 4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종정 법전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법전 스님은 이날 신년교시를 통해 "정법(正法)이 오래도록 이 땅에 머물게 하기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화합이 제일덕목"이라며 "인천의 사표인 출가대중은 자기정화의 지혜를 모으고 불퇴전의 정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중앙종회의원, 중앙신도회장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합천 해인사/글 · 사진=박재완 기자

은해사 문화재예산 삭감 논란

"영천시의회 일방적 조치 부당" 반발 여론

경북 영천시의회가 은해사 관련 문화재 예산을 삭감해 은해사와 갈등은 물론 지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해 말 영천시의회 예결특위는 은해사가 시책사업인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건의 은해사 문화재 보수사업 예산 2억655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은해사는 법의 스님(영천 죽림사 주지)과 법일 스님(은해사 부주지)을 공동위원장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영천시의회가 주장하는 삭감 명분인 은해사 집단시설사업 비협조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동 사업은 물론 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 협조했다"고 밝히며, "영천시 의회 의원들이 민의를 거슬러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폭거"라 주장했다.

현재 영천시와 시의회 홈페이지는 이번 문화재예산 삭감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지역민들로 어수선하다. 신창수씨는 "세계가 자국 문화재 보존에 앞장서는 때 이번 문화재 보수예산 삭감조치는 영천시의 경쟁력,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퇴보시킨 참담한 조치"라며 예산 지원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대책위원장 법의 스님은 "은해사 부근 공원조성 사업에 은해사 소유 토지가 포함됐는데 그중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곳이 문제의 발단 같다. 2, 3월 중 열리는 추경에 예산이 지원돼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의회 임상원 의장은 1월 3일 기자의 통화 요청을 바쁘다며 거절했다.

조동섭 기자

아는만큼 보호받는 지적재산권

조계종, 불화·경전 등 사례별 정리 자료집 발간

최근 불교문화 및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의도치 않게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불교문화 지적재산권을 올바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불교문화 지적재산권의 현황과 분석> 자료집을 출간했다.

책에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현황과 불교문화재와 관련된 재산권 문제, 불교문화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사찰출토문화재의 소유권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불화 · 불상 · 경전 등 불교문화의 종류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보호 방안도 사례별로 정리했다. 자료집을 토대로 불교문화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무엇인지 짚어본다.

◆사찰 건축물=저작권법상의 건축물 정의에 따르면 사찰 전각이나 탑, 석등, 전시장, 공원 등도 포함된다. 때문에 독특한 양식의 사찰건축물의 경우 저작권법상 건축 저작물로 보호받게 된다. 그러므로 새로 세워지는 사찰이나 탑, 부도, 부속건물의 경우 건축가가 그 저작권을 가진다. 이 경우 건축 저작물의 개보수 또는 변형을 위해서는 건축가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대웅전과 같이 사찰의 중심 건물을 대량으로 인쇄해 엽서 또는 달력을 제작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불상 · 불화=최근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불상과 불화 역시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상이므로,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된다. 비록 사찰이나 개인이 불화 · 불상을 구입해서 소유권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래의 목적' 이외에 불화 · 불상을 야외에 전시하거나 출판 등 기타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불화나 불상의 경우 건물 내에 전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작품에 문제가 생겨 수선을 해야 할 경우에도 작가에게 연락해 수선을 부탁해야 하며, 부탁을 거절했다고 해서 임의로 작품을 수선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선을 해야 할 경우라도 저작물이 원래의 작품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작품의 본질성을 해치게 되는 경우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불화 · 불상의 활용방법과 개보수문제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약정을 맺어 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권자가 임의로 같은 불화 · 불상을 제작해 유통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따로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불교경전=한자나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등으로 표기된 불교경전은 저작권자가 따로 없다. 하지만 이런 불교경전을 한글로 옮긴 번역본은 저작권이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한글로 된 불교경전의 경우 번역자 또는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 전에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경전 번역본을 게재하거나 인쇄물 등에 인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법문의 경우 온라인상에 게시되었다 하더라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불교음악 · 무용=찬불가를 포함한 범패의 경우 저작권자는 범패의 이용 및 사용에 관련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음악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구입한 CD 음악을 mp3 파일로 변환하거나 불법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불교 무용의 동영상을 온라인상에서 게시할 경우 배경음악을 통해 음악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불교무용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재해석하고 안무를 구성했다면 안무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한다. 창작무용일 경우는 당연히 안무가가 저작권을 가진다. 불교무용에 사용되는 음악은 작곡가가, 불교무용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촬영자가 저작권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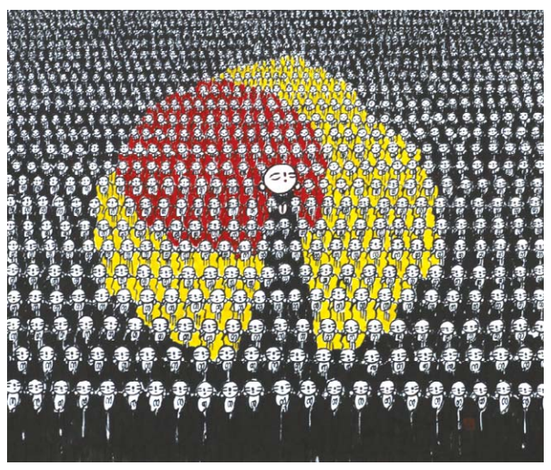
◆사진저작물=법당이나 조각 등 입체적 작품을 사진으로 촬영한 경우 피사체의 선택, 구도의 설정, 조명 등 연출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되면 사진저작물로 인정된다. 이와 달리 평면적인 회화를 사진저작물로 인정할 것인가는 아직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회화 등의 평면적인 문화재를 촬영한 사진은 단순 복제로 취급되어 사진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사찰이나 스님의 동의 없이 스님의 모습을 촬영한 경우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며, 허락을 받은 후 촬영한 것은 영상 제작자가 저작권을 갖게 된다. 때문에 제3자가 법회를 촬영하도록 허락했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한다.

여수령 기자

새연재 | 오늘의 禪語/윤창화 ▶8면

허허당의 세상만사



화엄법계도 / 천년의 세월을 씻고… '一心'

달도 휘고 해도 휘고/ 해인지 달인지 사람인지!
무슨 일로 저렇게/ 한덩어리로 서있는가?/까만 밤은 어쩌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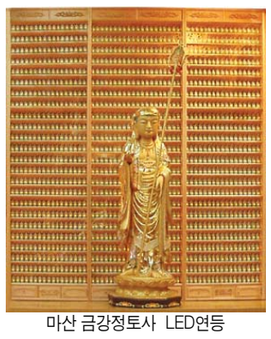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瑞安 법률사무소 서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평촌역 도보 5분)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연등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팔각봉축접등
※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 법륜사 법당

남양주 영도암 인등

군산상주사 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SBS 예능 프로그램 '불교 폄훼' 논란

종교가 지나치게 경직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방송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 종교 고유의 신성성을 해친다면 창작의 자유로 보기 곤란하다. 아무리 대사가 자유로운 예능 프로그램이라도 종교에 대한 이해 없이 과도한 언어유희를 무작정 남발한다면 해당 성직자는 물론 신자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웃음 주려고 "스님 조폭 닮았네요"

시청자게시판에 출연진 비판 의견 등 줄이어

지난해 12월 29일 방송된 SBS '이경규 김용만의 라인업(이하 라인업)'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라인업은 송년스페셜로 준비한 15회 방송을 '라인업, 산사에 가다'라는 제목으로 촬영했다. 라인업 출연진들이 공주 갑사에서 1박2일 동안 템플스테이를 하며 벌어지는 소동이 주 내용이다. 라인업 측은 이날 방송 기획의도를 "연말연시 들뜨기 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해를 차분하게 마무리 하자는 취지"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기획의도와는 달리 출연진들이 방송 내내 산만한 것은 물론 사찰 · 불교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도 없이 스님들에게 예의 없는 언행을 보였다. 그동안 라인업은 출연진들의 소위 '막말 방송'으로 구설에 올랐었다. 15회분에서는 특히 스님들과 불교를 폄훼하는 발언을 방송 내내 쏟아 내 불자가 아닌 시청자들에게까지 불쾌감을 조성했다는 평이다.

방송 중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고민하다'라는 제목의 코너였다. 한 출연자는 스님에게 "조폭(조직폭력배)을 닮았다"면서 "눈썹을 정리하고 염주 등의 액세서리로 외모를 치장하고 가리라"는 말을 했다. 또 다른 출연자는 불경이 잘 외워지지 않아 고민이라는 스님에게 "불경테이프를 늘 들고 다니면서 립싱크를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발우공양 시간에 한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의 발우에 음식을 옮겨 담는다던지, 팥죽을 끓인다면서 사찰에서 고함을 지르고 실랑이를 벌인다던지 하는 내용들이 문제 장면으로 지적됐다.

방송 이후 라인업 시청자게시판에는 "사찰을 지나치게 희화화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시청자 정동관씨는 "절 · 스님 등의 종교적인 요소들에 항상 엄격주의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선을 넘어서는 희화화는 오락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장원씨는 "촬영하기 전 사찰이 어떤 곳인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행동해야 하는지 정도는 알고가는 것이 예의"라며 "정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방송된 지 1주일여가 됐지만 불교계의 방송 모니터링이나 공식입장발표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사단법인 보리방송모니터회는 "방송 내용을 모니터링 하기는 했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신도회 산하 종교평화위원회는 "예능 프로그램이라 어디서부터 비판을 해야 할지 모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라인업 방송의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사찰이 배경으로 쓰이면서 한층 더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웃기기 위주'의 방송 언어, 편집에 대한 불교계의 입장이 없다면 추후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주 갑사의 김학보 종무실장은 "스님들께서는 너그럽게 이해하고 계시지만 일부 신도들은 라인업 출연진에 실망한 것 같다"면서 "사찰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지만 지나치게 희화화된 일부 농담들이 여과 없이 방송된 점은 아쉬웠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무자년 한해 더욱 힘찬 정진을"

조계종 등 각 종단 시무식 열고 신년 다짐 밝혀

무자년 새해를 맞아 불교계 각 종단들이 1월 첫째 주 시무식을 열고 힘찬 한해를 다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시무식을 열고 새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시간은 기다리면 지루하지만 지나고 나면 화살같이 빠른 것"이라며 "종무 교직자와 사부대중 모두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서로 의논하며 원활하게 종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종단 예산이 넉넉하진 않지만, 예비비를 써서라도 종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과 수련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종무원들 모두 맡은 업무도 부지런히 살피고, 각자의 실력과 지식을 길러 달라"며 업무 능력 향상을 강조했다.



1월 3일 시무식을 개최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단체 종사자들이 알찬 한 해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2008년도 종단 시무식 및 신년 하례법회를 1월 3일 사간동 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운산 스님, 중앙종회의장 인공 스님, 중앙사정원장 월운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신년사에서 "종단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모든 종도들이 합심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긍정하고 이해하며 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시무식에서는 보광선원 주지 보광 스님이 종단 발전기금을, 경기북부 종무원과 경북 종무원은 태안 기름유출 방제지원 성금을 전달했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은 1월 3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 무진설법전에서 시무식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무자년 새해에 종단 산하 모든 단체들이 지혜로써 더욱 풍요로운 한해를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신년사를 했다. 한국불교 여래종(총무원장 혜인)도 1월 4일 총본산 옥천 대약사사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거행했다.

김주일·여수령 기자

'종교 정치세력화' 우려 목소리

보수 개신교계 총선 목표로 정당 창당 추진

보수 개신교계가 올해 4월 치러질 총선을 목표로 정당 창당을 추진해 '종교 정치세력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교도영성훈련원 전광훈 목사(서울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개신교인 20여 명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여전도회관에서 창당발기 준비모임을 갖고, 1월 중으로 '(가칭)사랑실천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여는데 이어 3월 중 지구당을 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장로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이다.

이들은 창당 취지문에서 "사회 일각에서는 친북반미사상을 가진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 난동을 부리며,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가를 존폐의 위기로 내몰았다"며 "국가 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병리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자 사랑실천당을 창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신문 뉴스파워 기사에 따르면, 당초 창당 발기인에 포함됐던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와 김홍도 목사(금란교회 담임목사), 장경동 목사(대전중문침례교회), 김문훈 목사(부산 포도원교회) 등 일부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 창당 준비 과정이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신교 내부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국교회언론회는 12월 31일 논평을 통해 "목회자들이 나서서 정치를 통해 사랑실천 운운하는 것은 정당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이며, 교회의 사명을 곡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목회자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므로 인하여 더 이상 정치를 희화화(戱畵化)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수령 기자

태고종, 중국과 문화교류 합의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중국 불교계와 공식적인 문화교류를 갖기로 합의했다.

태고종은 지난해 12월 26일 중국 베이징 중국국가종교사무국(국장 예샤오원)에서 한중불교문화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한국불교의 영산재와 중국 범패교향합창단 '신주화악(新州和樂)'을 상호 교환 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태고종은 우선 올 상반기 중 두 차례 서울에서 중국 심천교향악단을 초청해 신주화악 공연을 태고종과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 중국불교협회 공동 주최로 연다. 이어 하반기에는 태고종 영산재보존회(회장 환우)가 두 차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를 시연한다.

'신주화악'은 중국불교음악과 서양교향악의 음악 특색을 결합시킨 대규모 교향악곡으로 이미 싱가포르 등의 동남아 순회공연에서 호평받은바 있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광주지사 : (062)268-1508
전북지사 : (063)910-519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조계종 원로 비구니 상륜 스님 원적



작년 12월 28일 법륜사서

조계종 원로 비구니 스님인 무아당(無我堂) 상륜(相倫) 스님(승가사 회주·사진)이 12월 28일 오전 8시 용인 법륜사에서 입적했다. 법납 60세, 세수 78세. 스님의 영결식은 12월 30일 용인 법륜사에서, 다비식은 예산 수덕사에서 엄수됐다.

상륜 스님은 1946년 통도사에서 경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66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51년 양산 내원사, 1955년 수덕사 견성암에서 수행정진했고 이어 1971년 북한산 승가사 주지로 부임한 후 30여년간 중창불사와 포교활동에 매진해 왔다. 또한 승가사 제일선원을 설립해 수행 가풍을 진작시켰으며, 1985년 전국비구니회 부회장과 비구니 목련회 회장을 맡아 비구니 위상 제고에 진력했다. 1992년 BBS불교방송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여수령 기자

종단협, 1월 10일 올 첫 이사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는 1월 1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올해 예산안과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재)대한불교진흥원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서울 / 부산 (일반인, 직장인 환영)
2008학년도 전학기 신입생 모집 [2년 / 4학기 · 주·야간]

불교대학 최초 명상학과 개설 / 대학원 과정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개설 / 법사과정(3년제)신설
2008학년도 입학생 전원에게 50% 장학 혜택이 주어집니다

모집과정
● 대학 과정(서울 · 부산)
◇ 입문과정(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 불교학과 (서울·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서울·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명상학과(서울·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대학원 과정(서울 · 부산)
◇ 불교학과(서울·부산) : 야간 00명 [주 2회 출석]
◇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서울·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법사 과정(서울 · 부산)
◇ 법사과정(서울·부산) : 주·야간 00명 [3년제, 주 2회 출석]

강의시간 ● 주간 -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 야간 - 오후 7시부터 9시 40분까지
지원자격 ● 대 학 과 정 :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일반 불자 및 직장인 환영)
● 대학원과정 : 불교학과-불교 교양 대학 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상담학과 졸업자, 상담심리과정 이수자
● 법 사 과 정 : 55세 미만이며, 불교전법활동을 원하는 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2007년 12월 1일 ~ 2008년 3월 3일
● 입문·대학·대학원 전형 : 서류 전형
※ 전화 신청 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 등록금 납부 시 카드 결제 및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문 의
● 서울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3층, 전화 02)707-1072, 706-1571
● 부산 : 부산 금정구 장전동 382-3, 전화 051)583-7811

특 전
● 법사과정
- 사찰습의, 의식집전 교육, 설법교육을 통해 정예화 된 불교전법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 법사과정 졸업 후 소정의 법사고시 후 합격자에 한하여 법사품수를 하며 성적우수자에 한하여 지정된 포교원에서 전법활동을 할 수 있다.
● 불교전문심리상담사 자격증 부여
본교의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를 졸업하시면 소정의 실습 및 연수과정을 거쳐 2급 불교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에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시어 구체적인 전문영역(아동 상담, 청소년 상담, 가정 상담 등)을 수료한 분에 한하여 소정의 실습 및 연수 과정을 통하여 1급 불교전문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 명상전문지도사 자격증 부여
불교대학 최초로 명상학과를 개설하여 다양한 명상방법의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 실질적인 수련을 체득해 나가면서 지혜를 얻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명상방법들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명상연구의 영역을 넓히고 더 나아가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1, 2급 명상 지도자를 양성하여 내적으로 익히고 경험한 명상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는 환경과 지도, 운영 방법을 모색하여 점차 명상전문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재)대한불교진흥원
Daewon never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우리도 부처님처럼…”

성도재일 앞두고 각 사찰서 다양한 정진 프로그램 마련

음력 12월 8일 성도재일은 싯다르타 태자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날로, 불교계의 4대 명절 중 하나다. 1월 15일 성도재일을 앞두고 전국의 각 사찰들이 깨달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사찰들은 음력 초하루부터 성도재일까지의 8일간을 ‘참회정진주간’으로 정하고 참선과 절 수행 등의 용맹정진을 펼치고 있다. 선원과 강원에서는 가행정진을 하며 부처님의 6년 고행과 진정한 깨달음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전국 대부분의 사찰들은 성도재일 하루 전 철야정진을 시작해 당일 오전 회향 법회를 봉행하는 성도재일 법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대전 비구니 청림회는 1월 15일 오후 2시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부처님 성도절 대법회 불자화합 대축제를 봉행한다. 1부에서는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을 초청법사로 법회를 봉행하고, 2부에서는 대전 연합합창단이 음성공양을 한다. LMB 싱어즈, 추민수 밸리댄스가 3부를 장식하고, 보문고등학교 재학생 15명에게 각 30만원 충남대학교 불교 동아리 100만원 등 장학금도 지급하는 전달식을 4부로 축제의 막을 내린다.

서울 조계사(주지 원학)는 수행지침서와 점검표를 만들어 배포하는 한편, 법당에 수행에 도움이 되는 글귀를 묶은 책자를 비치해 하루 108번 읽도록 하고 참회정진주간 동안 8명 이상에게 권유함으로써 수행의 생활화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진주간 동안 경내에 명상음악과 명상의 말씀을 방송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큰 뜻을 되새겨볼 수 있도록 한다. 1월 14일 오후 9시에는 대웅전에서 성도재일 철야정진을 시작해 15일 오전 10시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02)732-2183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는 1월 9일부터 7일간 매일 오후 7~9시 참선정진을 펼친다. 또한 성도재일 하루 전인 14일 오후 9시부터 철야정진을 시작해 15일 오전 10시 법왕루에서 성도재일 법회를 개최한다. (02)3218-4827

고양 흥국사(주지)는 ‘성도재일 전야 새해 소망의 등 공양 법회 및 철야정진’을 진행한다. 14일 새해소망의 등불을 밝히며 철야기도와 참선법회를 봉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철야정진은 14일 오후 10시 시작해 다음 날 새벽 4시에 회향한다. 정진은 신묘장구대다라니경 108 독송과 참선법회, 108대참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02)381-7970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는 3000배 용맹정진법회 및 철야정진법회 그리고 연등불사를 봉행한다. 철야정진법회는 14일 오후 8시부터 15일 새벽 4시까지 계속되며, 성도재일 당일인 15일 오전 9시 30분에는 육화전에서 석왕사 조실 고산 스님의 법문이 펼쳐진다. 3000배 용맹정진기도는 8일 입재해 14일 오전 9시에 회향하는 일정이다. (032)663-7771~3



광주불교사암연합회가 지난해 개최한 성도재일대법회 모습.

예산 수덕사(주지 옹산)는 성도재일을 앞두고 부처님이 깨달은 큰 뜻을 새겨보기 위한 실수 참구정진법회를 봉행한다. 법회는 1월 12일 오후 3시부터 13일 오전 11시까지 무이당과 심연당에서 진행되며, 참가 제한은 없다. 참가비 3만원. (041)337-6565

한편, 부처님의 성도 일자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설이 분분하다. 남방불교에서는 대개 5월초에, 중국에서는 음력 2월 8일설, 3월 8일설, 3월 15일설, 4월 8일설, 5월 8일설 등이 있다. 선가(禪家)에서는 음력 12월 8일을 성도일로 정하고 송(宋)나라 때부터 이 날 성도회를 행한 것이 전해 내려와, 이 풍습이 우리나라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여수령 기자 · 혜철 충청지사장

연합불교방송 옥천서 송년법회 봉행

연합불교방송은 지난해 12월 28일 충북 옥천 관광호텔에서 승왕청 최고위원 및 종단 원로대덕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송년법회를 열고 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인왕 스님은 “육근이 청청해야 자비한 마음이 생긴다. 서해안의 기름유출에 승속을 막론하고 불자들이 앞장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한다. 남의 일로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에서 깨어나라 모든 종교가 화합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2008년이 되길 발원하자”고 법문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대전 신행단체협의회 송년법회 봉행


대전 신행단체협의회가 지난해 12월 28일 백불회관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대전 신행단체협의회(회장 이진옥)가 지난해 12월 28일 대전 백불회관(관장 장곡)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지도법사 장곡 스님은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 사람은 소원을 성취하기 전에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며 “한 해를 뒤돌아보고 자신의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반성하고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라”고 법문했다.

한편 신년하례법회는 1월 12일 오후 3시 대전 둔산 오페라웨딩4층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초청법사로 봉행할 예정이다.

혜철 충청지사장

천안 성불사 이웃에 ‘자비의 쌀’ 전달

천안 성불사(주지 원경)가 지난해 12월 26일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독거어르신과 소년 · 소녀가장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천안시에 자비의 쌀 10㎏ 200포를 전달했다.

성불사는 매년 천안시에 자비의 쌀을 보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6일에 개최된 송년의 밤 행사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 28명에게도 장학금을 전달했다.

성불사 주지 원경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몸과 마음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군산 동국사 석가삼존불 도 유형문화재 지정예고

현존하는 국내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 대웅전의 석가모니불좌상, 가섭존자입상, 아난존자입상 삼존불상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13호로 지정 예고 공시됐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2월 20일 동국사 삼존불을 전북도유형문화재 제213로 지정 공고했다.

본존불인 석가모니불좌상은 높이가 150cm로 촘촘한 나발에 육계가 뚜렷하고 통견법의를 두른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으며 가섭 · 아난존자입상은 높이 160cm의 등신불이다.

이번에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석가삼존불은 나무로 틀을 짜고 진흙을 발라 조성한 소조불상이다. 이 불상은 원래 김제 금산사 대장전에 안치되어 있던 것인데 해방 후 남곡 스님이 동국사로 모셔온 것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대웅전과 연결되어 있는 요사채를 근대문화유산 등록 문화재 제64호로 추가 지정했다. 일본식 건물의 특성상 대웅전과 요사채는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건물이나 그동안 대웅전만 근대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난해 12월 29일 예산 수덕사에서 정영 대종사 영결식이 원로회의장으로 봉행됐다.

정영 대종사 영결식 원로회의장 엄수

덕숭총림 예산 수덕사에서 조계종 원로 영파당(靈波堂) 정영(瀞暎) 대종사 영결식이 지난해 12월 29일 원로회의장으로 봉행됐다.

원로회의 고산 대종사가 행장을 소개한데 이어 정영 스님의 육성법문이 흘러나와 대중들이 눈시울을 적셨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법문하고,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추도사를 했다.

중앙종회의장 자승 스님, 선원대표 설정 스님, 상좌대표 종담 스님, 장의위원회 집행위원장 옹산 스님(수덕사 주지),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등 3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운구행렬에 동참했다.

스님은 다음과 같이 임종게를 남겼다.

참이니 거짓이니 의논하지 말게!
만사는 처음부터 봄눈과 같은 것!
이 암주(庵主)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말게나.
통활(通闊)한 하늘에 눈달이 잠기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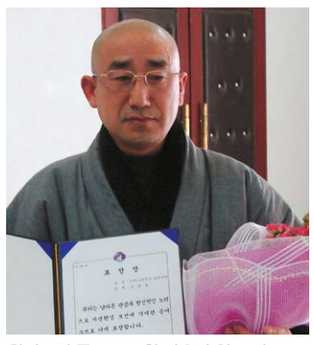
혜철 충청지사장

송월 스님 환경보전 공로 표창

군산 성흥사 주지 송월 스님이 환경보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공로로 군산시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송월 스님은 매년 환경문화제를 개최해 청소년들에게 자연환경오염의 경각심을 심어 주고 철새 모이 주기, 금강 하구언 청소 등 환경 보전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무료 급식소 운영, 군산교도소 교화활동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한편 송월 스님은 전북 환경문화제 입상자 시상식을 거행했다.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군산 부속초등학교 이서래군 등 80명이 수상한 시상식에서 송월 스님은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오염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막대하다”며 청소년들이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지혜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보전 공로로 표창 받은 송월 스님.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신행단체 독거노인 지원

공주불교신행단체(회장 유성근)가 지난해 12월 21일 독거어르신들에게 연탄과 쌀, 라면을 배달했다. 공주시 사회복지과에 의뢰, 공주시 이인면에 계시는 독거어르신 일곱 분을 선정했다.

올해로 창립 4주년을 맞은 공주불교신행단체는 공주시청 불자회, 공주경찰서 불자회, 공주 교도소 불자회, 월효사 거사림회, 공주 불교청년회, 마곡사 합창단, 마곡사 공주 포교당 합창단, 운불련, 공주붓다라이온스클럽, 대학생불교회, 반야회 등이 속해있다.

혜철 충청지사장



미국 MIT 불교학생회서 보내온 새해인사



"'공부·수행·자비' 실천하는 한해로"

저희 프리즈노따야 MIT불교학생회는 새해를 맞아 한국 불자님들과 쉘터(Shelter)의 성휴 스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자님들께서 그 동안 저희들과 함께 일궈주신 불심원력에 대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프라즈노따야 재단 및 동 연구소, 그리고 저희 불교학생회는 새해에도 지금까지 해온 활동을 크게 확장하여 공부와 수행, 자비공덕을 더불어 실천할 계획들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전법실천' 으로는 MIT 본교캠퍼스를 중심으로 참선수행의 일상생활화를 주관하여 점차 다른 대학가로 확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본교 부설 '불교학연구소' 및 '보디마르가 사이버법회' 개설을 위한 종합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한편, 인도 뉴델리의 샨티 스투파의 '세계평화의 탑' 장엄불사를 지원합니다.

이와 아울러 '자비실천' 으로는 저희 불교학생회의 'IDEA' 팀이 인도 현지에서 결핵환자 3500명 치료와 예방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일반보건관리 요원을 양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피해복구가 부진한 스리랑카의 쓰나미 피해지역에 현지파견 자원봉사를 지속하며 스님들을 대상으로 간호조무 및 응급의료 연수를 실시합니다. 또한 '프리툰자야' 팀은 미국 내에서 임종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등 간호조무를 실행하는 한편, '우따야' 자혜 팀은 인도에서 극빈아동들에게 보청기를 무상보급하고 월 700명의 외래환자를 위한 무료진료소를 완공합니다. 그리고 '프라즈노따야 망갈람' 팀과 '자비의 숲' 팀이 공동으로 인도에서 건설 중인 노인의 료시설과 경로원도 새해에 완공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저희 후원자들이 베푸시는 시간과 자원 등 자비로운 보시로 이뤄집니다. 한국의 불자님들도 이웃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방편들을 찾아가시리라 믿습니다. 밝은 새해에도 한국의 불자님들과 저희 불교학생회 사이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불제자들의 바른 뜻이 바른 열매로 맺어지는 참으로 기쁜 날들입니다.

회장 텐진 프라다시 합장

아웅산 수지 평화인권상 대리 수상

지난해 12월 19일자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에 따르면,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이자 장기자택구금중인 아웅산 수지는 로마시가 그녀에게 수여한 '로마 평화인권상' 을 前 월드컵축구스타이자 오랜 불교도반인 로베르토 바지오가 대신 받아주도록 요청했다.

2006년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도록 법적으로 공인된 불교는 현재 약16만명 신도의 교세로 발전, 로베르토 바지오와 같이 매일 참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독실한 불자들이 증가일로에 있다.

출처: GDS

도쿄 고찰서 불교의상 패션쇼 열려

도쿄의 유서 깊은 고찰인 추키지혼간지에서 불교신도의 노령화에 대비하고 청소년불자의 신심을 굳히기 위한 스님들의 불교의상패션쇼가 지난해 12월 15일에 있었다. 8개 종단에서 약40명의 비구, 비구니스님들이 출연한 이 행사에서는 힙합과 불교음악을 배경으로 각종 정교한 전래법의를 선보이고 현란한 연꽃 꽃종이들이 뿌려지는 가운데 대성황을 이뤘다.

한편 지난여름 토쿄 도심의 콘묘지는 사찰 경내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고 디스코, 요가 교실, 그리고 커피와 음료가 제공되는 '카미야초 열린 테라스 카페' 를 개장했다. 현재 일본불교는 7만5000여 사찰들이 9400만 불자의 불심을 새롭게 다지는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

출처: ASAHI, AP

'눈 먼 믿음' 버리고 '눈 뜬 자아' 찾다

원드스타 불심도스타

영화배우 나오미 왓츠❶



50년대 미국서부의 명문대학들 사이에서 태동한 '샌프란시스코 르네상스' 라는 미국 판 문화혁명의 정신적 주체가 불교철학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후 불교는 최첨단과학기술의 요람 실리콘밸리, 국제금융가 월스트리트에서도 심신수양에서 다국적 경영실무에 이르기까지 널리 응용된다. 특히 70년대부터 불교는 종합예술제국 할리우드에서 급성장, 혁신적인 통신, 영상매체를 통해 국제전법이 펼쳐진다. 할리우드의 삼대법사라 할 리처드 기어, 영화감독 올리버 스톤, 조지 루커스 말고도 여류스타들도 여러 인연으로 불제자가 되어간다. 열다섯 살에 장학생으로 대학에 입학한 수재이자 영화 '원초적 본능' 의 스타 샤론 스톤 보살은 탐진치 삼독의 진창길을 헤매다 마침내 보리수 아래서 쉴 그늘을 찾았다.

재능 많고 말도 많은 코트니 러브 보살은 붓다의 옷자락을 붙들고 약물, 알코올의 늪에서 헤어났고, 열정의 가수 티나 터너 보살은 불법이 가르친 인욕(忍辱)의 실천으로 모욕, 폭력으로 얼룩진 결혼생활의 악몽을 떨쳐냈다. 또 변호사 수습을 하다 만능탤런트로 변신한 제니퍼 로페즈 보살은 영화 '춤출까요?(Shall we dance?)' 를 찍던 중 상대역인 리처드 기어의 단아한 불성에 끌려 도반이 됐다.

영화 '킹콩' 의 스타 나오미 왓츠(사진) 보살의 경우, 서머싯 몸의 원작을 각색한 영화 '허울 좋은 너울(The Painted Veil)' 의 현지촬영차 중국에 머물다 어느덧 고운 불연을 맺었다.

이 메가스타들의 공통분모는 '눈뜬 자아' 다. 그래서 그들은 여느 사회적 통념과 타성에 끌려 다니지 않는다. 예컨대 그들은 신앙의 경우도 남이 믿으니까 또는 믿으라니까 그저 따라가지 않는바, '눈먼 믿음' 을 좇는 군상들과는 지능, 교육, 판단력에 근본차이가 있다.

불교는 서구의 미개인(?)들에게 거룩한 불법을 전파한다는 구실로 살육약탈하거나 병 주고 약 주는 따위의 만행을 자행한바 없다. 특히 할리우드 대스타들은 타고난 재색에 명예와 재산마저 두루 지녔다.

게다가 지옥 닮은 산전수전부터 천국 닮은 호화사치까지 죄다 겪어버린즉, 더 이상 그런 데 신경을 안 쓴다. 그들은 이미 맛이 한참 가버린 종교적 버라이어티쇼 또는 광신적 집단히스테리에 안쓰러운 눈길을 보내며 하나둘 일주문으로 들어서고 있다.

성휴 스님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Sunny Days or Rainy Days

-세상만사,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There was a woman ever crying for her never-ending worries, whose elder daughter had married an umbrella vendor and the younger a noodle vendor. On sunny days, she would weep,"Gee, no! No one will buy umbrella and my elder will get starved." And when rain came, she kept weeping,"Oh, my god! No noodle can be dried for sale, and my younger will soon get starved." The neighbors called her 'the weeping woman. One day, a monk asked, "What makes you so sad?"and she explained so and so. He chuckled, "Well, Let me tell you how to be happy." "How, venerable?" "So simple! On sunny days, think not of the elder and umbrella, but just of the younger drying much noodle." "And?" "On rainy days, think not of the younger and noodle, but just of the elder selling many umbrellas." "Oh, and both of them will soon get rich. We should have met earlier!" Soon afterwards, she became 'the giggling woman'?

허구한 날 걱정거리로 질질 짜는 어느 아줌마의 두 딸 중 큰 딸은 우산장사한테, 작은 딸은 국수장사한테 시집을 갔다. 해가 쨍쨍한 날엔 그녀는 "아이고, 이런 맑은 날씨에 누가 우산을 사주나? 내 큰 딸 굶어죽겠네!"하며 징징댔다. 그러다 비가 오면 "안 돼! 내다팔 국수를 못 말리면 작은 딸 굶어죽어!"라며 또 훌쩍댔다. 동네사람들이 '징징 아짐마' 라 부르는 그녀에게 한 스님이 물었다. "만날 뭐가 그리도 슬프시오?"여차저차 그녀의 얘기를 들은 스님이 껄껄댔다."그럼 늘 랄랄라 신바람이 날 방법을 일러드리지요." "어떻게요, 스님?" "아주 간단해요. 해가 쨍한 날은 큰 딸이랑 우산은 생각 마시고, 작은 딸이 국수 많이 말리는 생각만 하세요." "예?" "그리고 비오는 날엔 작은 딸이랑 국수 생각은 치우시고 큰 딸이 우산을 많이 파는 생각만 하세요." "어머나, 그럼 둘 다곧 부자되겠네. 진작 스님을 뵈었어야 하는 건데!"그런 뒤로 그 징징 아줌마가 '깔깔 아줌마' 로 바뀌었다나?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중과 나한이 삼재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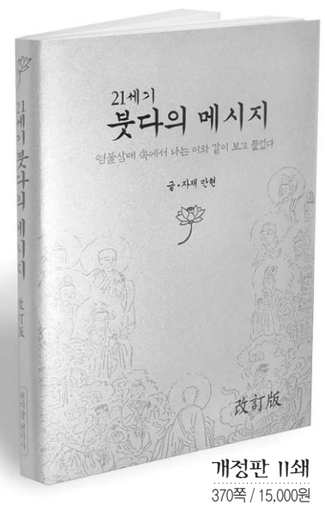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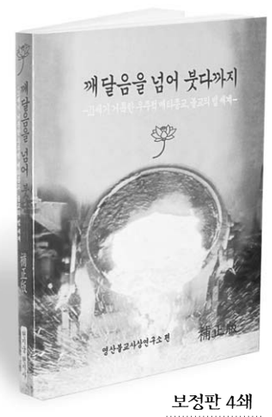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尊評"

절찬리 판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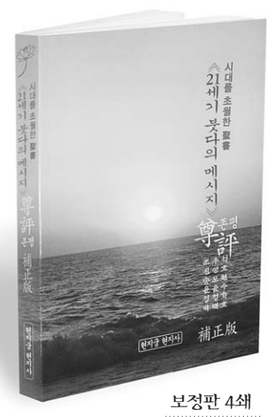
개정판이 나와 발행 2년만에 11쇄 !!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체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교의 설명으로는 ,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할까....., 나는 이제 현지사 큰스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한 성서를 꼭 필독해보기시 바란다.

- 지방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

http://www.hyunjisa.or.kr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궁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영산불교 현지궁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불교사회복지 도약 기틀 다지는 한해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신년 맞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불교사회복지 종사자간의 네트워킹과 그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하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높았다. 불교복지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학술발표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에 부응하는 실제 계획이 뒷받침 되지 않아 불교사회복지의 역량이 한데 모이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 또한 컸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연구소에서 2008년을 시작하며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대거 내 놓았다. 불교사회복지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프로그램들이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시설 종사자들과 사찰이다. 종사자들과 사찰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불교사회복지를 행하는 주체가 이들이기 때문이다.

불교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불교복지 프로그램의 의미는 상당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은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직업이라 그런지 ‘보살심’만 요구되는 경우가 숱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고도의 정신적 수양이 필요한 직업이기에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스트레스를 이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앙의 역할인 셈이다.

또 종사자들에게는 종교시설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필요하다. 타종교시설이나 일반시설에서 일하는 것 못지 않은, 그보다 더 좋은 종사자 프로그램은 불교사회복지의 위상을 담보하게 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올해부터 ‘불교생태’ ‘인간소외’ 쪽에 집중해서 종사자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각종 사회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계획”이라며 “불교 안팎의 사회 관심사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불교사회복지 색깔 만들기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가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올 한 해 다양한 불교사회복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종사자의 불교사회복지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불교사회복지 ‘색깔’ 찾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대불교자료사진>

◆불교사회복지 종사자 프로그램=불교사회복지연구소가 2007년 11월 발표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욕구조사 결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에서는 20~30대의 4년차 미만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0%이상이 양질의 불교교육을 받고 싶어했다.

그러나 불교교육을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고 종사자들 중에는 비불자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불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너무 불교적이지 않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불교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으로 나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필수교육으로는 ‘불교복지 아카데미’가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교리중심 불교교육에서 벗어나 교리와 현장의 소리, 실제 생활과의 접목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프로그램에서도 ‘불교와 욕망’, ‘연기’ 등 불교 신자가 아니라면 공감하기 힘든 개념을 끌고 오기는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한층 삶에 다가가 있다. 예를 들어 ‘중도적 삶의 실천’이라는 주제가 있다면 불교에 입각한 현실적 중도, 즉 생태적 삶이나 느림의 삶에 대해 강의하는 식이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생태와 복지다. 이는 불교복지가 일반 사회복지의 대안복지로까지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종사자들에게 제시하면서 이들의 마음가짐을 다지는 역할도 한다.

선택과정으로 마련된 ‘웰 다잉(Well dying) 강사 양성과정’의 경우,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호스피스 사업과 행복한 임종에 관한 문제들을 불교식으로 이끌어 내는 과정이다. 올 3월말~4월초 시행될 이 과정에서는 스님 · 의사 · 종교학자 등 10명의 전문가가 죽음준비교육 특강에 나선다. 특히 한림대 생사학연구소 오진탁 교수의 ‘웰 다잉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죽음을 체험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이론과 실습으로 꾸린다. 오 교수는 “죽음의 질 향상 없이 삶의 질 향상을 논하지 못하는 시대이므로 불교사회복지 특유의 죽음준비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지도자를 양성하면 사람들에게 존재 가치를 제대로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찰 복지교육=사찰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관계 정립에 불교사회복지는 빠질 수 없는 영역이다. 일례로 2007년 말 일어난 태안 지역 기름 유출 피해 사건을 보면 예산 수덕사는 사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교구본사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하나의 사건을 예로 들었지만 사찰과 지역이 긴밀하게 연결되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제대로된 사찰—지역사회 간의 관계는 꼼꼼한 준비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사찰사회복지아카데미1’부터 개설한다. 이는 종단 내 스님 · 종무원 · 신도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심있는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복지환경 변화와 불교사회복지 방향 ▲지역사회 내 시설 유치 및 설치 전략 ▲사찰 자원봉사 · 해외구호 활동 사업 탐색 ▲대안복지로서의 불교 등에 대한 1박 2일간의 교육으로 실시된다.

사찰사회복지아카데미1은 올 2월부터 현재 복지시설을 운영 · 지원하고 있는 사찰 100여 곳을 중심으로 먼저 실시할 계획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이를 통해 사찰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 찾기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화두인 저출산고령화를 불교식으로 타개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는 비만 아동탈출 · 공동육아 · 노년 수행공동체 등의 톡톡 튀는 사찰프로그램 교육도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사찰사회복지아카데미2’도 현재 프로그램의 골격을 마련하고 있다. 사찰사회복지아카데미2는 직영시설 운영, 시설 수탁, 법인 마련 등의 세세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불교사회복지의 차별화된 부분까지 강조하게 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최종환 부장은 “사찰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찰의 불교사회복지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찰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생명나눔 선정 1월의 환우 김태곤씨

“다시 뛰고 싶은 젊은이에게 힘을 주세요”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2008년 1월 환우로 급성골수성백혈병 · 밀러피셔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는 김태곤(25·사진)씨를 선정했다.

김씨가 이런 큰 병에 걸릴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해병대에 자원입대할 정도로 건강했으니까. 하지만 복학을 앞둔 2006년 11월, 김씨는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게다가 1차 항암치료를 마친 후 밀러피셔증후군이라는 희귀말초신경병증으로 근육이 마비돼 지체장애 2급 판정까지 받았다. 그나마 밀러피셔증후군은 초기에 발견됐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경우 치료의 효과가 크다고 한다. 백혈병도 좋아지면 좋으련만, 아직은 몇 차례 항암치료는 물론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아야 한다. 항암치료 중에도 재활의학과 치료는 계속돼야 한다.

현재 가족 중 김씨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다 부도, 1억 7000만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 게다가 당뇨와 고혈압이 생겨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어머니는 호텔 조리원으로 일했으나 현재는 김씨의 간병에 매달리고 있는 상태다. 가족 중 유일하게 소득이 있는 대학생 형은 군 제대후 생활비와 동생 치료비를 마련해 보려고 밤낮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이다.

김씨의 치료비만 지금까지 1000만원이 넘었다. 남은 치료와 타인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을 경우 4000~50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가 다시 건강한 몸으로 활보하기 위해서는 불자들의 정성이 필요하다. (02)734-8050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김강진 기자

대전교정청 2007년 교정수기 공모 우수상

논산 안심정사 법안 스님

20년 가까이 교도소를 드나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교정법회는 내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중 하나다. 나를 기다리는 수용자 법우들과 후원해주는 공덕회원들이 있으니까.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법회를 한지 5년쯤 되던 해의 일로 기억한다. 특별면담을 신청한 수용자가 있었다. 당시 33세 청년이었다. 그는 살인죄로 복역하고 있던 터였다. 외모도 좀 무섭게 생겼고 얼굴에는 칼자국이 있었다. 그는 첫마디가 “저는 떡신도입니다”였다. 떡신도란 스님들이 교도소에 올 때 떡을 잘 해오기 때문에 떡을 먹으려는 목적으로 법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란다. 그는 떡을 먹으려고 참석했던 법회에서 법문을 듣다보니 비로소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달았고, 평생을 통해 참회하면서 특히 20대에 자기의 칼에 죽은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다고 했다. 조직폭력배로 살며 사람들을 헤쳤던 시간들을 그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었다.

불교반장이었던 하 법우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다. 하 법우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매결연으로 받은 영치금을 모았다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양말과 겨울 내복을 사주는 사람이었다. 자신도 어려운 처지의 장기수로 의지할 것이라곤 한 달에 한번 들여주는 영치금 만원 뿐인데 그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남을 위하여 쓴다는 것이 어찌 쉽겠는가? 그를 보면서 수용자의 마음속에도 관세음보살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노래 법회’로 새로운 희망 찾아

지난 달 법회 때였다. 불교반을 4년 8개월이나 이끌어왔던 법우가 갑자기 반장직을 내놓는다는 것이었다. 봉사활동도 잘하면서 법회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의외였다. 그의 말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었다. 교도소내의 결코 작지 않은 특권을 포기함이란 쉽지 않은 일인데 자신에게 그 소중한 기회를 남을 위해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니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지장보살님이 교도소에 오셔서 수용자들을 교화하려 하신다면 역시 수용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임에 틀림없다. 남들이 다 구제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도 구원받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서원을 나는 그 법우에게서 보았다.

이런 수용자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보다 흥미 있으면서 효과적인 법회를 이끌까 고민을 많이 했다. 끊임없이 생각하다보니 요즘 다른 법회에 활용하는 노래방법회를 나도 한 번 해보게 됐다. 수용자들이 좀 더 마음을 밝게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맑고 아름다우면서 미래지향적인 노래로 선정해 함께 부르기도 하고 상품을 걸어놓고 법우들에게 음성공양을 하도록 권유했다. 요즘 이 노래방법회가 인기가 아주 많아 흐뭇하다.

세상은 혼탁하고 서로 믿기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맛이 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수용자와 교정직원들을 만나면서 무척 기쁘고 보람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만남이 있기 때문이다. 복의 힘이 강하면 복된 쪽으로 이끌려가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악업과보에 의하여 끌려가면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살아가야 한다. 아주 단순하지만 그것이 진리다. 수용자들 가운데에서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면서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한은 나 자신을 위해서, 수용자들을 위해서 법회활동을 할 것이라 다짐해 본다.



책으로 보는 북한 단청



조계종 신계사복원추진위
〈단청무늬 자료집〉 발간



백색바탕에 화려한 용무늬 등이 대들보에 채색된 성불사 응진전 내부 단청.

북한에 위치한 사찰 및 일반 전통 건축물의 단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안화한 <단청무늬 자료집 · 사진>이 발간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끈다.

조계종 신계사복원추진위(총재 지관)가 2005년 북한 조선문화보존사에서 출간된 자료의 판권을 얻어 남측 실정에 맞게 재편집 · 발간한 자료집에는 북측 33개 사찰 전각 60여동과 서원과 정자, 문루 등 일반건축물 37동의 각종 단청 문양이 종류별로 집성돼 있다.

조계종은 단청에 대한 개별 용어나 서술 및 편집 방식 등을 북측 원본을 최대한 살리고자 했다. 다만 남측 이용자를 위해 건축 용어는 남측 사용 용어로 변경하고 두음법칙 적용과 띄어쓰기 등을 수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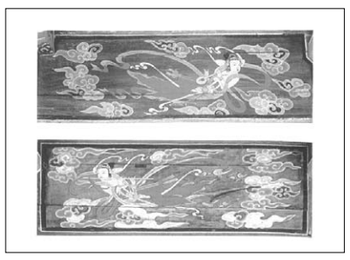
자료집 구성은 건물부재 양 끝에 장식된 모루무늬와 무늬의 구성과 색체의 아름다움이 비단천에 비유된 비단무늬, 기둥 머리부분에 장식된 기둥무늬 등 건축물 구조명칭 중심으로 됐다. 도해와 건축물별 색인을 두어 단청과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다.

그간 북측 단청 자료는 2003년 평양 법운암 단청 작업 지원을 시작으로 열린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사업으로 2004년에는 <남북 단청-남북 단청문화교류 자료집>이, 2007년에는 금강산 신계사 단청공사 보고서인 <신계사 단청>이 발간됐었다.

이번 자료집은 남북 사회문화교류와 발맞춰 북측 문화보존지도국에서 실시된 단청 보수 사업의 결과물로 북측 단청 문양과 색채, 사용 용어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실사 자료라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분희 행정관(총무원 문화부)은 "남측 단청이 화려한데 비해 북측 단청은 색감이 옅은 특징이 있다. 북측은 옛것처럼 보이는 고색단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묘향산 보현사 화장암 벽체

운문사 승가대 중국 칭화대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학인스님 해외 유학길 활짝 열려

전통 강원을 수료한 학인스님들의 해외 유학길이 열리게 됐다.

운문사 승가대(학장 명성)는 최근 중국 칭화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사실을 발표했다.

이번 협정으로 운문사에서 공부하는 학인스님, 졸업자는 물론 교수진까지도 칭화대 대학원 진학에 우선권을 부여받게 됐다. 운문사 강원에 재학 중인 학인스님 300여명과 졸업생 1600명이 이번 협정의 수혜자가 됐다.

또 운문사와 중국 칭화대가 특정연구에 공동참여 함은 물론 주기적으로 국제학술교류대회를



국제학술교류 협의서 체결 중인 운문사 승가대 학장 명성스님(사진왼쪽)과 장메이랑 칭화대 국제교류 팀장

열기로 했다. 1차 연구과제로는 경전 한역과정에 쓰인 한문 특성 및 한문 불전 정리와 번역에 대해 연구하게 된다.

한편 운문사 승가대는 일본 하나조노 대학과도 실무 협의를 모두 마치고 학술교류협정 체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교계 관계자는 이번 중국 칭화대 및 일본 하나조노대와의 교류협정 체결로 더 많은 학인스님들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동섭 기자

우리 학회는 | 〈1〉 한국불교학회 www.ikabs.org

불교의 미래는 인재불사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로서야 하며 불교가 교학으로 체계화돼 있어야 합니다. 교학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불교학이 바로서야 불교가 바로 섭니다. 불교관련 학회들의 활동상과 비전을 살펴보며 앞으로 한국불교학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불교 르네상스를 열어갈 학회

한국불교학회는 연혁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불교학계의 맏형이라 할 수 있다.

한국불교학회는 불교에 관한 효율적인 연구 및 학술활동 관련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1973년 발기됐다. 1973년 11월 전국불교학술연구발표대회를 시작으로 2007년 11월까지 47회에 걸쳐 학술발표를 열었다. 2008년 열리는 불교학결집대회의 주관단체기도 하다. 불교학결집대회는 2002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 2년마다 열리는 한국불교의 미래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범불교 연합학술대회다.

올해 불교학결집대회가 열리는 5월까지는 이평래 교수(충남대)가 이후로는 김선근 교수(동국대)가 회장직을 맡는다. 교계 원로학자인 권기종, 김상범, 김영태, 목정배, 서종범, 원의범, 이재창 박사를 고문으로 대학교수 100여명과 연구원 50여명, 석 · 박사 200여명 등이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사찰과 문화 · 예술계를 포함한 전체 회원 수는 500여명 된다.

논문 발표는 회원에 한하며, 한국불교학회 회원은 불교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자격으로 정회원은 3만원, 평생회원은 연 30만원 회비를 내면 된다.

행사는 매년 춘계와 추계 2회에 걸쳐 불교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주제로 학술발표대회 개최한다. 동계와 하계에는 일정 주제를 선정해 워크숍을 연다. 2007년 하계 워크숍 때는 도올 김용옥(세명대 석좌교수)을 초정해 봉은사 강당에서 학회행사로는 드물게 500명이 넘는 불자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학회지로는 <한국불교학>을 발간한다. 1975년 12월 창간돼 2007년 49권까지 나왔고 학진등재지 심의를 1차 패스했다.

한국불교학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것이다. 2006년 불교학계에서는 처음으로 사단법인화 되어 후원금 납부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함은 물론 다양한 사업으로 학회운영의 신모델 창출이 가능하게 됐다.

김선근 차기 학회장은 "학자들의 교단 내 씽크탱크 활용, 영문저널 출간 등 불교학의 저변확대와 세계화를 통해 불교 르네상스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조동섭 기자

삼존불 주변 관광명소화 계획도 마련 중

'백제의 미소' 43년 만에 햇빛으로 본다



'백제의 미소'로 유명한 충남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 · 사진)이 43년 만에 햇빛을 보게 됐다.

서산시는 2007년 12월 28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서산 마애삼존불 주변정비 계획을 승인받아 서산 마애삼존불 보호각 철거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마애삼존불 보호각은 1965년 풍화방지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호각의 폐쇄형 구조 때문에 보호각 내부와 암벽에 습기가 유지돼 마애삼존불의 훼손을 촉진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그 결과 문화재청은 2005년 6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마애불상 보존환경을 조사했고 지난해 초 보호각의 지붕과 기둥 등 일부만이 남겨진 채 나머지는 철거돼 있었다.

보호각 철거를 마친 서산시는 지속적으로 마애삼존불 보존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삼존불 주변을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종합정비 기본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산시 김영균(문화관광과)씨는 "보호각 철거는 모두 마쳤다. 상반기 중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던 콘크리트 재질의 삼불교를 목조 혹예교로 교체하고, 삼존불 보호를 위해 감시카메라도 설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삼존불 보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해부터는 햇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는 마애삼존불의 온화한 미소를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공 고

귀의 삼보하옵고,
대한불교원효종 신년하례법회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종도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8(2552)년 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 경남 마산시 진전면 시락리 218번지
구 낙동초등학교
문의 : 02)735-0501

종 정 : 벽송
(종정예경실장 : 도암)

원로원장 : 무진
원 로 원 : 혜봉, 정향, 창해, 법선, 도선
종회의장 : 인담
종회부의장 : 지상 , 원봉
종회의원 : 성해, 금봉, 운영, 법선, 도봉, 송담, 운학, 명관, 상기, 영산
총무원장 : 향운
(총무원장특보 : 지명, 사서실장 : 상호)

부 원 장 : 운오
교육원장 : 태운
상벌원장 : 운학
비구니북원장 : 자성

법규원장 : 법선
문화원장 : 혜일
복지원장 : 심상
비구니남원장 : 인명

호계원장 : 도천
포교원장 : 지광
전국비구니회장 : 명관

총무부장 : 우석
재무부장 : 상기
사회부장 : 혜공
호법부장 : 화운

교육부장 : 선정
문화부장 : 법경
포교부장 : 지수
복지부장 : 능인

의전부장 : 삼륜
연수부장 : 도공
의전실장 : 대련
호법국장 : 혜정
감찰국장 : 도현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교구종무원장 : 진산
경기교구종무원장 : 인담
강원교구종무원장 : 법선
충북교구종무원장 : 석암
충남대전교구종무원장 : 일륜
전북교구종무원장 : 운학
광주전남교구종무원장 : 마명
경북교구종무원장 : 도봉
경북남교구종무원장 : 영운
안동교구종무원장 : 명석
대구교구종무원장 : 불타
울산교구종무원장 : 금봉
부산교구종무원장 : 심상
경남교구종무원장 : 보각
서부경남교구종무원장 : 법산

대한불교 원효종 종 정 벽 송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향 운

마하보디교육원

제26차 불교전문호스피스 교육안내

나는 내가 죽음에 직면하도록 돕는데 만족을 느끼며,
나의 요구를 이해하는 민감하고 지각있는 사람에 의해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 호스피스윤리 中에서 -



일 정 2008년 1월 26일(토) ~ 2월 2일(토)
내 용 35개 전문과목을 통한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대 상 스님,포교사 및 불교인으로서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
원서접수 홈페이지, 전화, 방문, 우편접수
원서마감 2008년 1월 20일
교 육 비 59만원(교재비 별도, 학인스님 20% 할인)
문 의 처 [마하보디교육원] 052)264-1007
[정토마을] 043)298-2258
http://jungtoh.com

21세기 보디샤트바의 길!

오직 경험을 통한 자각과 성찰을 통하여 자신의 영성을 온전함으로
치유하고 고통에 직면한 중생들을 치유와 돌봄으로 함께 하는 여정...
호스피스전문가 과정에서 함께합니다.

마하보디교육원 정토마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TEL 052-264-1007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TEL 043-298-2258] http://jungtoh.com



"와~ 우리나라 목판 너무 아름다워요"

의왕 청계사 목판 인쇄 작업 현장

"와 옛날에는 경전을 이렇게 인쇄 했네요!"
"우리나라 목판 인쇄물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조선시대에 인쇄술이 이렇게 발전한 줄 미처 몰랐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나라 목판 인쇄술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과 청계사(주지 성행)가 공동으로 1월 3일 의왕시 청계사에서 경기도유형문화재 135호 청계사 목판을 전통방식으로 인쇄하는 작업을 공개한 자리에서다. 오전 11시 대웅전에서는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의 집전으로 목판인출을 부처님 전에 알리는 법회가 열렸다. 30분 동안의 의식이 끝난 뒤 성행 스님은 인쇄 작업이 공개되는 강당으로 <묘법연화경> 경판을 이운했다.

성행 스님이 시연을 시작하자, 기다리던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발 터졌고 그 틈 사이로 불자들이 신기한 듯 머리를 빼곡이 내밀며 경판 인쇄 작업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현장에 있던 김경숙 보살(45)은 "요즘은 인쇄술이 너무 발달돼 책 한 권 만드는데도 몇 시간이 안 걸리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여러 과정을 거쳐 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경판에 대한 외경심이 든다"며 "복사본이라도 경전을 대할 때마다 앞으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질 것 같다"고 경판 인쇄 작업을 본 소감을 피력했다.

또다른 참가자인 가정법회 신행모임 여여회 이란 회장은 "신행모임에서 <법화경>을 15년 동안 공부해 왔는데 다음 주 회향에 앞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 <법화경> 경판을 친견하러 왔다"며 "복사본을 가지고 그동안 편하게 공부했는데 실제로 목판본에서 인쇄돼 나오는 <법화경>을 보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치열하게 공부했던 옛 선지식들의 향훈이 물씬 느껴져 감동스럽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번에 인쇄된 경판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비롯, 18종 466판이다. 이는 양면으로 합산하면 932면(일부는 4면)으로 모두 35질이 인출(印出 · 책판에 박아냄)된다. 여기에는 불교강원교과목(선요, 도서, 절요, 서장 등)과 불교의식 문헌(예수시왕생칠경, 오대진언,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 등), 계초심학인문. 발심수행장, 몽산법어, 천자문, 천지팔양신주경판 등이 포함돼 있다.

청계사 경판은 평균 가로 50㎝×세로 21㎝ 규격으로 양면에 각자(刻字)돼 있다. 특히 이 경판은 조선후기(17세기~18세기) 목판으로 당시의 인쇄 문화와 불교문화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인출에는 국산 닥나무로 만든 최고급 전주한지 4만장(가로 60㎝×세로 50㎝)과 먹물 60㎏이 들었고 경판세척을 위해 국산 천일염 40㎏이 사용됐다.

인출 과정은 총 3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 '경판세정'에서는 맑은 물 18리터에 천일염을 희석한 뒤 경판을 세척해 음지에서 자연 건조시켰다. 건조할 때는 반드시 음지에서 해야 경판의 비틀림을 방지할 수 있다.

2단계는 '경판 인출' 과정이다. 먹을 사용해 경판을 인경(印經)하는 작업이다. 3단계는 '경판관리'다. 먹물을 제거하지 않고 역시 음지에서 자연 건조시켜야 해충예방을 할 수 있다. 이어 목록별로 분리작업을 하며 경판 마멸상태를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경판에 분류목록을 한지로 부착한다.

경기문화연구원 윤여빈 전통문화실 전문위원은 "먹을 목판에 칠해 손잡이를 잡고 한지에 차례로 찍어내는 과정인 '인출'은 먹물의 농담과 칠하는 양을 판단해야하는 매우 정교하고 세밀한 작업과정이 요구된다"며 "인출본은 반으로 접어서 제책을 하며 금석문의 탁본과는 큰 차이가 있을 만큼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이번 경판 인쇄 작업은 조선시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우리 인쇄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청계사 경판인출을 통해 기록 문화재의 원본자료를 확보, 기록문화재 연구를 활성화하고 근대 한국 선불교의 산실인 청계사 일원 문화재 보호에 기폭제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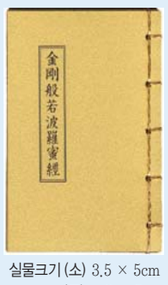
청계사는 통일신라 때 창건된 전통사찰로 고려 충렬왕 때인 1284년 평양부원군 조인규(趙仁規)가 사재를 들여 중창했다.

이 절에는 경기문화재자료 6호(3동의 요사와 10채의 건물), 국보 11-7호 동종(1701년 주조, 높이 115㎝ · 지름 71㎝), 경기유형문화재 135호(경판) 등 각종 문화재가 있다.

기록 문화재 활성화 연구 위해 경기문화재단과 시연
<묘법연화경> 포함 18종 466판 등 총 35질 인출

글=김주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용 소량 영장 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메훔족자
60 × 20cm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오늘의 禪語 ①

"난해한 언어일수록 쉽게 쓸 것"

선어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들어간다

선어는 선의 정신과 사상, 그리고 추구하는 바를 4~5 개의 글자 속에 응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선의 세계에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불교의 여러 언어 중에서도 선어처럼 개념이 잘 포착되지 않는 말도 드뭅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한 폭의 동양화이기도 합니다. '선은 절대 언어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 또한 이 언어문자를 등에 업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어를 모르면 전통선(傳統禪)을 이해할 수도, 선의 고향에 가 볼 수도, 선향(禪香)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선승들의 법문을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선의 세계로 입문할 수 있도록 오늘의 언어로 풀어야 합니다. 가능한 쉽고 간결하게 풀이해야 합니다. 난해한 언어일수록 쉽게 설명하는 것, 그것이 글 쓰는 자의 화두입니다.

이 글을 어떤 방식으로 읽든 그것은 독자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한가하게 벽에 기대어 읽어도 좋고 출퇴근 시간에 심심풀이 삼아 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선어는 마음을 가다듬고 읽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한번 쯤 더 음미해 보면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색 없는 선은 없습니다.

선이 추구하는 바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수행자로서 어떻게 하면 번뇌와 욕망의 활화산으로부터 벗어나 평온한 마음 상태, 그 어느 곳에도 미련두지 않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선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선의 입장-선(禪)과 인간의 실존

달마 이래 많은 선자(禪者)들은 진지한 시각으로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고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정신적으로는 '공(空)'과 '불이(不二, 무분별을 의미함)'를 추구했고, 마음가짐은 '무심(無心, 무번뇌심)' '무사(無事, 무번뇌사)'를 지향했으며 생활철학으로는 '무소유' '중도' '무집착'을 택했습니다. 또한 진리란 다름 아닌 '그대의 자성(自性佛)' '그대의 마음이 곧 진리(卽心是佛)'라고 갈파했고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는 '모두 마음의 작용(一切唯心造)'이라고 직시했습니다.

따라서 선승들이 읊은 선시나 오도송 화두 선문답 등 모든 선어가 '공(空)' '중도' '불이(不二)' '무집착' '무심' '무분별' '즉심시불' '일체유심조(관념 타파의 의미)' 등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시도 오도송도 선문답도 화두도 아닙니다. 뜻밖에도 선어는 엄격한 기준과 사상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은 논리나 상식을 초월해 있다' 또는 '상식적 논리적으로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마치 선은 체계도 없고, 기준도 논리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로는 접근할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뜻일 뿐, 선의 논리는 이상과 같이 정연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집착'이나 '공(空)'은 물질적으로는 '무소유' '텅 빈 상태' 등을 뜻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개념화하지 않고 그 무엇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진리(깨달음)'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정법은 없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깨달음(無有正法名阿耨多羅三藐三菩提)"이라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철저히 신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을 신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무언가 선(禪)에는 초현실적인 것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세계는 없습니다. 선은 불노장생을 추구하는 양생술도, 인간의 미래를 예견하는 쳘학도 아닙니다. 간혹 무슨 특별한 세계가 있는 것처럼 떠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말하는 자의 과장(과잉표현)이 아니면 화려한 언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청자(聽者)의 망상입니다.

무애자재가 선이 추구하는 바라고 합니다.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애를 착각한 나머지 아무 거리낌 없는 무절제한 행동이 선(禪)인 양 호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객기(客氣)입니다. 무애란 바로 번뇌로부터 무애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지, 건달들의 행진이 아닙니다.

선은 붓다의 정신을 체득하는 작업입니다. 현실 긍정적 사고 아래에서 형성된 선자(禪者)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무심, 무집착의 입장에서 각자(覺者)다운 삶을 전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천년 넘게 추구해 온 선의 이상향입니다.



윤창화

1965년 입산, 1978년 환속, 해인강원 13회.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 졸업. 논문으로는 <한암선사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패> <한암선사의 서간문 고찰> 등이 있음.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1>

연재를 시작하며

수행자들 성불 발심 심어주기 위해
여성성자 즉신성불 확신등 조명계획

"아난아, 여인이 만약 법과 율에 있어서 집을 나와 출가하면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를 현증할 수 있느니라."

여성 출가제도의 성립을 묘사한 남전대장경 <비구니 건도(犍度)>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다. '최초의 아라한'인 부처님께서 여성도 아라한과를 증득할 수 있다고 확인해 준 장면이다.

<법구경 주석서(Dhammapada-Commentary)>에 등장하는 성자들을 분석한 한 통계에 따르면, 총 1만2975명의 성자가 수다원과 이상의 도과(道果)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붓다의 대중견성운동> 중에서) 이들 1만2975명 가운데 신분이 확실한 대중을 분석하면, 비구 2174명, 비구니 1012명, 우바새 69명, 우바이 2532명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비구니와 우바이를 합친 여성 성자는 3544명(61.2%)으로 비구와 우바새를 합친 2243명(38.8%)의 남성 보다 1300여 명이나 많다. 물론 신분이 불확실한 성자까지 포함하면 비구 8837명, 비구니 1015명, 우바새 584명, 우바이 2539명으로 남성 성자가 여성보다 많다.(아라한은 비구 7328명, 비구니 1014명, 우바새 8명, 우바이 3명) 하지만 재가자의 경우에 한정하면 역시 여성 성자가 남성보다 4.3배나 많다.

이는 여성이 차별받던 당시 인도의 상황 속에서 불교가 양성 평등과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예다. 동시에 제석천이나 범천, 마왕, 전륜성왕, 부처님 등 다섯 가지 지위에 오를 수 없다는 '여인 오장설(五障說)', 그리고 여자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으며 남자 몸을 받은 뒤에나 성불이 가능하다는 '전여신설(轉女身說)' 등이 잘못된 편견임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92 비구니 장로들의 출가와 수행, 깨달음과 해탈의 경지가 시로 묘사된 <장로니게(偈)>에 나타난 것처럼 초기불교 시대의 여성 성자들의 탄생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인 것이다.

초기 경전의 이러한 기록은 <유마경> <승만경> <화엄경>과 같은 대승경전이 성립한 시기에 이르면, 이론적인 정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더욱 강조된다. 재가 불교신도의 역할이 커진 대승불교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보살(菩薩, bodhisattva)로 표현될 정도다.

<화엄경>에서는 선재동자가 구도과정에 친견한 여성 선지식이 10명에 달한다. <유마경>에서는 천녀(天女)가 사리불과 선문답을 펼치면서 "여성으로서의 본성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여래장사상을 말하고 있는 <승만경>에서는 설법의 주체가 부처님이 아닌 재가의 결혼한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승만 부인의 설법을 사자후라고 하여 부처의 지위에 올려놓고 있다. 이와 같이 불교의 여성관은 초기불교 시대나 대승불교 시대에 있어서 성불과 해탈에 대한 남녀 차별은 없었다. 그러나 부파불교(소승)시대에 불타관의 변천과 더불어 남녀를 차별하는 내용이 경전에 담겨졌다. 특히 계율의 제약은 여성 오장설과 함께 변성남자설이 대두되면서 여신불성불(女身不成佛)설이 고착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요즘도 일부 여성 불자들 가운데는 "여성은 성불이 불가하기에 다시 태어나 남자 몸을 받아 깨닫겠다"고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필자가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을 연재하는 까닭은 우바이는 물론 모든 수행자들이 성불을 내생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금생에 끝마치겠다는 자신감과 발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부처님 재세 시에 무려 8353인의 아라한이 출현했건만, 후대에 내려올수록 깨달은 성자가 줄어든 것은 오로지 부처님과 그 가르침, 수행법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필자는 '붓다의 딸'로 불린 장로니로부터 대 여성 수행자들의 구도여정과 수행, 깨달음을 조명하면서 즉신성불(卽身成佛)에 대한 절대 확신을 나누고자 한다.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hanmail.net

신행게시판

●**연등국제선원 청소년 영어템플스테이=**연등국제선원이 1월 한달간 청소년 영어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1기(1월 7~10일), 2기(14~17일), 4기(28~31일)는 초등부(1~6학년), 3기(21~24일)는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원장 원유 스님, 러시아 출신 일조 • 혜행 스님, 스리랑카 출신 반야기띠 스님 등이 강사로 나선다. 자비명상, 불교레크리에이션, 아비라기도 등이 진행된다. (032)937-7032

●**능인불교대학 45기 모집=**서울 능인선원이 능인불교대학 45기 모집에 나섰다. 개강은 낮반 3월 4일 오전 10시, 저녁반 5일 오후 7시이다. 수업은 6월까지 4개월간 이루어진다. 낮반은 매주 화 • 금요일에, 저녁반은 수 • 금요일에 강좌가 열린다. 지광스님과 조용길 교수(동국대)가 강사로 나서 불교기초교리, 근본불교, 불교의식, 비교종교학, 사찰에서의 기본예절, 생활의 지혜 등을 교육하게 된다. (02)577-5800

●**대흥사 겨울수련회=**해남 대흥사가 두 차례의 겨울수련회를 마련했다. 1차 참선수련회는 1월 14~20일, 2차 참선수련회는 1월 25~31일 열릴 예정이다. 19~60세 성인 남녀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차별 인원은 40명. '나를 바로 보고, 나를 찾는' 길을 열어주는 대흥사 겨울수련회는 인기 만점이다. 겨울수련회에서 도움의 손길을 줄 자원봉사단도 모집한다.(061)535-5775

●**도선사 무자년 삼재팔난소멸 불공기도=** 서울 도선사가 일곱 번에 걸쳐 무자년 삼재팔난소멸 불공기도를 봉행한다. 1월 2일 시작되는 불공기도는 2차 6일, 3차 14일, 4차 22일, 5차 2월 3일, 6차 4일, 7차 16일에 각각 진행된다. 일곱 번 모두 동참할 필요는 없다. 적당한 날짜를 택하여 한 번 동참하면 된다. (02)993-3161

●**금산사 산사체험 67기=**김제 금산사가 1월 11~13일 열리는 산사체험 67기 모집에 나섰다. 2박3일 동안 진행되는 산사체험은 탑돌이, 스님과의 대화, 새벽예불, 108배, 발우공양, 울력, 암자순례, 다도, 108염주 꿰기, 절하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새벽예불 후에는 좌선으로 몸과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마련된다. (010)6589-0108

●**우곡선원 청소년 인성교육=**우곡선원 부산 심성개발교육원에서 1월 12일 오전 9시30분,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제2기 5강 명상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마음동산 꾸미기'를 개최한다. 부산 해운대 오션타워 1930호에서 열리는 '마음동산 꾸미기'는 우곡선원 홈페이지(www.wookok.org), 이메일(pusanwk@wookok.org)로 연수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051)740-6288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남여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Ⅰ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카필라"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를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대단히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있다.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고, 스님께는 승복색상에 맞게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청하고 있다. 또한"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 것이 독특하다. 성불화"카필라"는 남여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싸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수 있다.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 국가이름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벅" 사용

가격 88,000원

•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일진 100만셋트 판매기념

일진글루코사민100

관절이 불편하십니까?

날씨가 추울 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는
관절건강과 **연골건강** 꼭 챙기십시오!

일진제약 글루코사민은 관절, 연골의 구성성분으로 관절 ·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여 튼튼한 관절을 원하시는 분께 좋은 제품이다. 관절의 건강을 원하시는 분, 관절 연골에 영양공급이 필요하신 분, 관절 및 연골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약자, 여성분에게 좋은 제품이다.

노마진 특별기획가 판매!!



할인율 45%

▶**내용량** : 1통(570mg×270캅셀)

글루코사민100 특별할인
~~198,000원~~ ··· **69,800원**

총14개월분 (글루코사민 6개월분 + 칼슘 8개월분)

일진 헬씨 글루코사민100 글루코사민을 100% 함유한 헬씨글루코사민 100!

• 관절 및 연골의 영양공급이 필요한 중 · 장년층
• 원활한 신체의 움직임을 원하시는 분
• 기타 관절과 연골의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
• 관절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년기
• 등산과 마라톤을 즐겨하시는 분

제조원 일진제약(주) 주문상담 080-223-7000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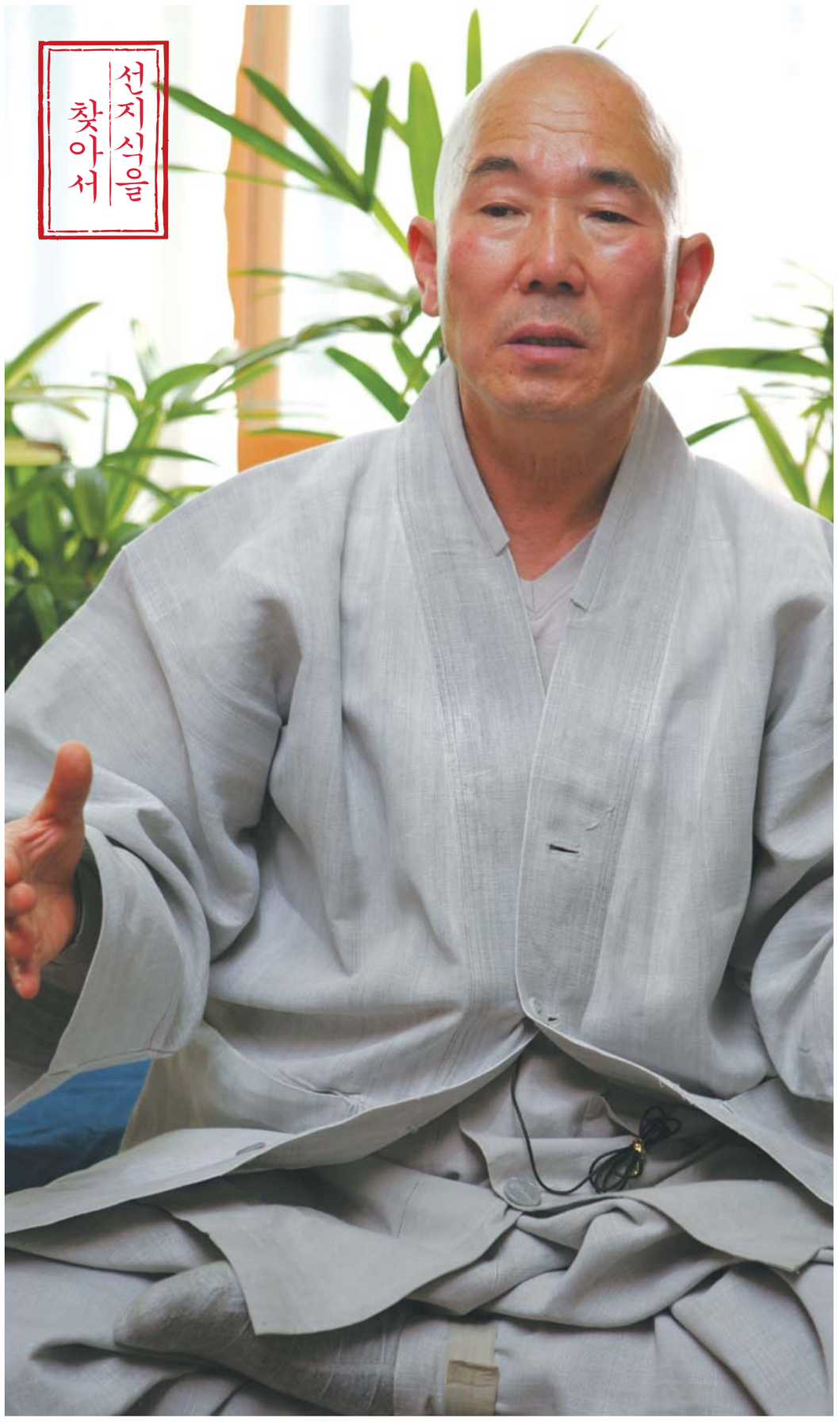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선지식을 찾아서

“마음을 다해 염불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극락’”



주경 스님 (성원사 주지)

‘염불선’ 주창한 청화 스님 가르침 계승
화 다스리기 위해 ‘오신채’ 섭취 금기시
“구하는 바 없이 염불해야 진정한 기도”

오십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앉은 거실은 열기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한 말씀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가슴에 오롯이 새기겠다는 듯이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주경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주경 스님은 성원사 신도는 물론 초청 법회가 있을 때마다 오신채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일러준다. 이 법문에 공감한 불자들이 하나둘씩 모여 갈앙회를 만들었다.

갈앙회 회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계율이 있는데 오신채(五辛菜)를 공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은 갈앙회 서울 모임이 있는 날이다. 주경 스님이 특별히 서울까지 힘든 발걸음을 하였다. 스님은 그동안 빚진 밥값을 갚기 위하여 법문을 청하는 곳이 있으면 먼 길 마다않고 달려가신다. 대중들이 운집하는 큰 법회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규모의 가정 법회도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주경 스님은 염불선을 주창하셨던 청화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고 그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청화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주경 스님은 사람들이 염불선을 두고 타력신앙이라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 하실 말씀이 참으로 많단다.

“염불은 타력신앙이 아니라 절대로 자력신앙입니다. 왜 자력신앙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부처님인가? 법당의 부처님은 상징적으로 모셔놓은 것이지, 그것이 진짜 부처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불상 앞에 과일이나 떡 등을 올려 넣고 ‘복주세요’하고 불공을 올리는데 그것은 불공이 아니야. 그런데 전혀 불공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여기 이 물병도 부처고, 컵도 부처고 법사의 육신인 고깃덩어리도 부처고 여러분도 부처입니다. 물질을 쪼개면 분자가 되고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되고 원자를 쪼개면 전자가 되고 전자를 쪼개면 중성자가 됩니다. 극미진 단계에 이르면 빈 공간인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인허(隣虛)라 합니다. 빈 것과 이웃했다는 뜻인데, 인허를 ‘진공묘유’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쪼개다 보면 파동 치는 순수한 에너지만 남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에너지, 때 묻지 않은 에너지를 두고, 부처님은 불성이라 했고, 예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라 했고 공자는 태극이라 했습니다. 그 순수한 에너지가 바로 우리 마음인데, 그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 마음을 잘못 쓰면 도구로 변하고 업으로 변해요.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자체가 부처 덩어리로 되어있어요. 우리는 전부가 다 부처인데 부처가 스스로 부처를 생각하는데 왜 그것을 타력신앙이라 합니까?”

동해안의 물이 자기 업으로 인해 추우면 얼음으로 변하고 바람이 불면 거품으로 변하지만 물의 본질을 잃지는 않는다. 그처럼 탐심과 치심으로 마음이 좀 더러워졌다고 해서 본래 지니고 있는 부처 성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변질된다 해도 우리의 불성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본래 우리는 부처인데 업에 가려서 불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면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고 한탄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업이 생겨나는지 모른다. 주경 스님은 업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였다.

“업이란 무엇인가? 업의 본질을 모르니까 업을 짓게 됩니다. 업이란 마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몸뚱이도 전부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움직일 때 집착하여 마음을 묶을 때 업이 지어집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업을 짓습니다. 업장은 화를 내고 욕심낼 때 더 쌓이게 되고, 화를 내면 몸에서 먹구름 같은 아지랑이가 생깁니다. 업을 적게 지으려면 자비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비를 내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광채가 발산됩니다. 바로 그 광채가 불성광명이요 아미타불입니다.

여러분들 본 마음이 아미타불입니다. 하심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때 밝은 빛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미타불입니다. 본 마음은 아미타불인데 업으로 인해 육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이처럼 내 몸에서 나투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나투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내고 욕심내는 이 마음이 아미타불에 가려서 안보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로 아미타불인데 왜 염불을 타력이라 합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여러분들의 업을 모두 다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나는 경전의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경 스님은 부처가 부처를 생각하면서 염불을 하는 것도 엄연히 자력신앙임을 논리정연하게 설하여 주셨다. 주경 스님은 우리 몸뚱이 자체가 부처이며, 내 가족이 부처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처인데 어디서 부처를 찾으려고 하는지를 묻는다. 부처란 자신의 몸에서 나투는 것이기에 나무아미타불을 간절하게 진실 되게 부르다 보면 업장이 소멸되고 종래에는 해탈하게 된단다. 해탈 즉 니르바나는 점점 작아져서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음을 말한다. 즉 무아가 바로 해탈인 것이다. 염불할 때 구하는 바 없이 염불해야 만이 진정한 기도가 되고 참선인 것이다. 구한다는 것은 내 주위에 ‘나’라는 울타리를 쳐놓은 것과 같으며, 나만은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 밑바탕에는 너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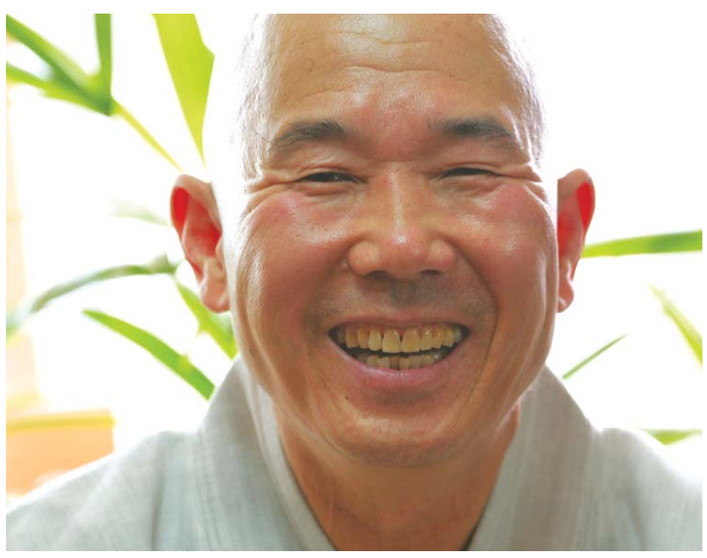
주경 스님은 마지막으로 왜 오신채를 먹어서는 안 되는지 그 연유를 말씀하였다.

“<능엄경>에 보면 ‘다섯 가지 매운 채소는 날 것으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이 생기고 익혀 먹으면 음란한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오신채를 먹는 사람은 그 독한 냄새 때문에 삼매를 닦더라도 보살과 천신들이 수호해주지 않습니다. 수행을 하는 이유가 ‘깨달음’에 있으며,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다스려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화입니다. 오신채는 몸을 부드럽게 하기 보다는 경직되게 만드는데, 경직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에 비해 감정의 변화도 심하고 화도 잘 냅니다.”

주경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어떤 계율을 정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이제야 알았다. 경전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부처님의 입김이 닿아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단 1초를 염불하더라도 지극정성으로 한다면 그 1초가 바로 극락이 된다는 주경 스님의 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한 꺼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우선 1초의 극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이, 극락을 누리는 그 1초가 모이고 모인다면 언젠가는 부처성품을 보게 되겠지.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주경스님은 태안사 청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태안사 정중선원 안거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제방선원에서 참선 수행했다.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 미얀마 등의 사미승을 선발 입국시켜 한국불교와 한국 문화 등을 직접 지도하여 국제 포교사로 양성하고 있다. 불교사상연구소를 설립하여 염불선을 중심으로 불법을 홍포하는데 힘쓰고 있다. 지금은 성원사 주지, 청화사상연구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무주불교 문화재단 설립 이사장이다.

SHC 삼환종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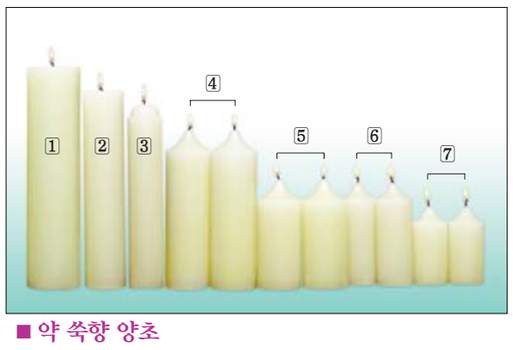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Φ X 35cm



■ 야광 용초 70Φ X 35cm



■ 원기둥 마패 7.4Φ X 30cm
등신불 마패 4.7Φ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D) 양초.net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92) 동리산 태안사


말똥가리.


배암차즈기.


이나무 열매.


이나무 수피.

봉황 깃드는 호젓한 대나무 숲길 걷노라면…

봉황은 일찍이 중국에서 용, 기린, 거북 등과 함께 사령(四靈)의 하나로 받들어져 왔다. 삼국시대에 불교와 함께 우리나라로 들어온 후 고구려 금동봉형장식, 백제의 금동용봉향로, 신라의 봉황 암막새 등 많은 유물을 남겼다. 신라 말에 풍수가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산 이름과 절 이름에도 봉황이 깃들기 시작했다. 선문구산 가운데 하나인 곡성 태안사(泰安寺)도 봉황의 절집이다.

태안사는 신라 경덕왕 때 초창되었지만, 역사적인 무게를 갖게 된 것은 창건 100년이 지나서 혜철(慧徹) 적인(寂忍) 선사가 이곳에 선문구산 동리산파를 열면서부터이다. 그 후 도선(道詵)과 여(如) 선사가 법을 이었고, 고려 태조 때 광자(廣慈) 대사가 크게 중창하였다.

태안사가 봉황의 절인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우선, 태안사가 앉은 산 이름이 봉황이 깃든다는 오동나무 숲, '동리산(桐裏山)'이다. 그 후에 바뀐 '봉두산(鳳頭山)'이라는 지명은 봉황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그 밖에 '봉정(鳳亭)' '유봉(留鳳)' '동계(桐溪)' 등의 이름도 봉황을 지칭하고 있다. 태안사가 자리한 죽곡면(竹谷面) 지명에도 봉황이 그 열매를 먹고 산다는 대나무 '죽(竹)'자가 들어가 있다. 일찍이 태안사의 형국을 봉황이 둥지로 날아든다는 '비봉귀소형(飛鳳歸巢形)'으로 보고, 일주문을 '봉황문(鳳凰門)'이라 이름 짓고, 암자 이름도 '봉서암(鳳瑞庵)'이라 했다.

태안사 생태탐방 구간은 들머리에서 능파각에 이르는 숲길 구간, 능파각에서 일주문을 지나 경내와 천불전 전체를 아우르는 구간, 2개의 암자를 포함한 주변 구간 등으로 나누면 간단명료해진다.

들머리 사하촌인 건모마을에서 큰 절까지는 2km 조금 못 미치는 거리이다. 도중에 인적이 전혀 없는 호젓한 숲길이다. 이 숲길은 눈맛이 부드럽다. 산자락의 모양새에 따라 물굽이도 부드럽고, 산모퉁이를 돌아가는 길굽이도 유순하고, 주변의 식생도 눈에 익은 활엽수들이라 눈에 그윽하고 편하다.

키 큰 나무들로는 참나무류를 비롯해 느티나무, 고로쇠나무, 팽나무, 검팽나무, 개암나무, 들메나무 등이 자라고, 인공 식재된 나무로는 삼나무와 편백나무들이 보인다. 중간키 나무들로는 당단풍나무, 감태나무, 가막살나무, 덜꿩나무, 생강나무, 비목나무, 물푸레나무 등이 보인다.

개울을 이리저리 건너며 오르는 산길은 비포장이라 무심으로 걷기에 그만이다. 동계천에 걸린 4개의 다리를 건너면 정자를 겸한 능파각(凌波閣)이 나온다. 건축 양식은 누각이지만, 본래의 용도는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가는 다리이다. '능파(凌波)'란 물결을 가볍게 건넌다는 의미이다. 번뇌망상을 파도에 비유하여 마음공부로써 능히 잠재우라는 옛 스님들의 간곡한 당부가 깃들어 있다.

능파각에서 일주문까지는 돌을 박은 시멘트길이라 오솔길의 운치를 반감시키고 있다. 오솔길 좌우로 우람한 전나무들이 선방 수좌들처럼 서 있다. 수령이 80년은 족히 되어 보인다. 느티나무, 서어나무, 이나무, 검노린재나무, 노린재나무, 산돌배나무, 삼나무, 편백나무도 친구하며 서 있다. 등걸 좋은 느티나무로 세운 일주문의 이름은 봉황문이다. 건축 양식은 일주문이지만, 경내에 너무 인접해 있어서 위치상으로는 천왕문이나 금강문이다. 일부 고찰에서는 천왕문을 봉황문이라고도 하니 더욱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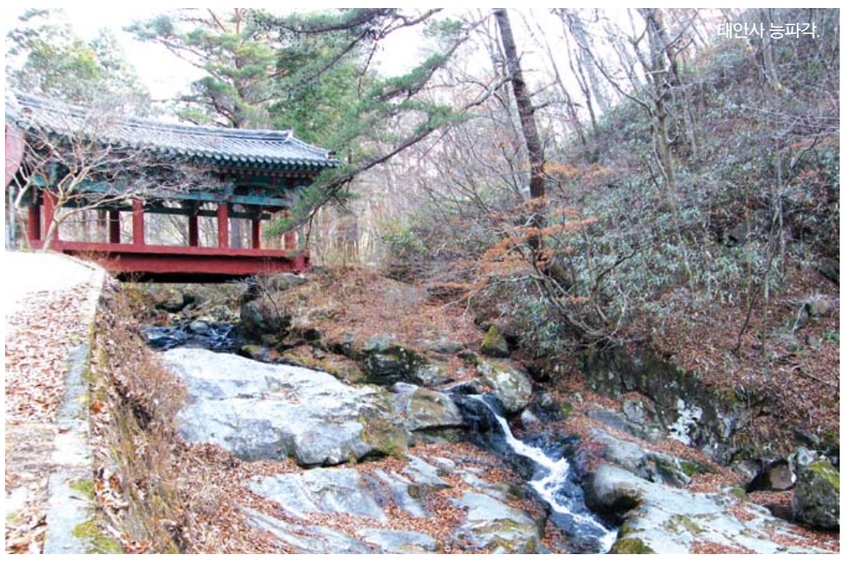
봉황문 오른쪽 부도전에 자리한 광자 선사 부도는 전형적인 팔각원당형으로, 하대석 각 면에 당초문(唐草紋)이 새겨져 있다.

태안사의 가람배치는 산간의 지형을 적절히 이용해 높고 낮은 석축을 쌓아 공간을 구획 지었다. 가람배치는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통일감을 잃은 듯하다. 요사채인 해회당(海會堂)은 ㅁ자형 중층 건물로, 고색이 제법 창연한 옛 건물이다. 보살님들이 곶감을 깎아 마루에 널어놓아 보는 이의 마음을 정겹게 한다.

적인 선사의 부도전 앞에 배알문이 있다. 문이 낮아서 절로 허리를 숙이게 하는 배알의 문이다. 좌우의 기둥들도 문을 들어서는 이들에게 허리를 꺾어서 한량없는 하심(下心)을 보여준다. 부재들이 상해서 최근에 새로 지었는데, 예전 문에 비해 고자세이다. 적인 선사 생전에 문성왕이 그의 노고를 치하하고 동리산중에 금살(禁殺) 당간을 사방에 세웠다고 하니 요즘의 생명보호 생태보전의 기치가 아니었나 싶다.

경내에 인공연못은 성격이 다소 모호하다. 연못 가운데 분수를 쏘아올린 것으로 보아 주변 경관을 차경(借景)하기 위한 영지(影池)도 아니고, 연꽃을 키우기 위한 연지(蓮池)로도 보이지 않는다. 풍수와 실용을 위한 작은 저수지 정도로 이해된다.

경내 계류에 콘크리트 관을 묻어 다리로 삼고 있는데 보기가 뭣하다. 건축(불사)이란 당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발현이라고 한다. 도시의 하수관을 산중 계류에 묻은 것은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대충주의' 때문인 듯하다. 차라리 계류 위에 통나무 몇 개를


태안사 능파각.

호흡기 약재로 쓰는 배암차즈기 겨울에도 관찰 용이
방치된 태안사 숲길 최근 '숲가꾸기 작업'으로 정리

걸쳐놓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경내의 조경수는 매우 다양하다. 남쪽이라 동백, 광광나무, 광나무, 목서, 피라칸타 같은 상록난대수종이 보인다. 적인 선사 부도전에 있는 동백은 수관이 넓어서 다른 동백과는 격이 다르다. 대웅전-삼성각-염화실을 잇는 산자락에 조성한 차밭도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로 훌륭하다.

겨울철 태안사 주변에서 관찰되는 초본으로는 배암차즈기가 첫손에 꼽힌다. 배암차즈기는 다소 습한 곳에서 자라는 두해살이풀이다. 잎사귀에는 잔주름이 많고, 양면에 잔털이 드물게 있으며,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내한성이 강해서 남부지방에서는 겨울에도 파랗게 살아있다. '곰보배추'라는 속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호흡기 질환 한약재로 많이 쓰인다.

태안사 주변 숲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당국이 숲가꾸기 작업을 벌여서 숲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 나무 줄기에 여러 색깔로 표지가 되어 있다. 붉은 표지는 벌목 대상목, 흰색 표지는 관찰목, 노란 표지는 보존목을 나타낸다. 주변에 어지럽던 대숲도 많이 정리되었다. 봉서암에서 성기암까지 임도 같은 흙길이 이어져 있다. 성기암에서 봉두암으로 오르는 외줄기 등산로가 나 있다. 두 암자와 천불전을 아우르는 제3 구간 역시 서어나무-신갈나무 군락이 보이는 가운데 이나무, 노각나무, 나도밤나무, 비목나무, 사람주나무, 서어나무, 산벚나무, 팽나무 등등 온대활엽수가 주류를 이룬다.

이나무는 내장산 남쪽으로 자라는 키 큰 활엽수이다. 나무껍질은 밝은 황갈색을 띠고, 자잘한 피목(皮目)이 수평으로 발달한다. 봄에 꽃이 핀 다음 가을에 붉은 열매가 작은 포도송이처럼 긴 자루에 드리워져 달린다. 남도 사찰에서 관상용으로 심을 만한 수종이다.

옛 글에 '봉황새는 오동나무에 깃들고, 죽실을 먹고 산다(鳳飢不啄粟 所食唯琅)'고 했는데, 태안사는 봉황의 절집답게 주변에 대나무가 많다. 죽실은 찰기[粘性]가 있어서 곤궁할 때는 떡이나 밥을 해 먹었다고 한다. 실제로 동학전쟁이 일어나던 해에 큰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는데, 마침 하늘이 도와서 조릿대에 꽃이 피고 죽실이 열려서 아사를 면했다는 기록이 있다. 절에서는 이 죽실을 어디에 썼는지는 기록에 없다.

적인 선사 비문에 '소나무 숲이 짙고 울창하여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 따스하므로 삼한의 승지(勝地)'라는 언급이 있지만, 지금 태안사 주변 소나무는 여러 번 천이를 거쳐서 바닥을 칠 정도로 약세에 있다. 몸집 좋은 노송들도 활엽수림에 기대 겨우 겯방살이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서어나무 군락에서는 여러 그루가 빗자루병에 걸린 듯하다. 몇 그루 산벚나무에도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 주로 대추나무에서 많이 나타나는 빗자루병은 마이코프라즈마라고하는 병원균에 의해 발생되는데, 잔가지가 빗자루처럼 갑자기 많이 생기면서 1~2년 사이에 나무가 고사하는 병이다. 병든 가지를 잘라내는 외과수술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나무줄기에 이따금 팽이버섯이 돋아나 있다. 버섯은 대체로 겨울에 활동을 중지하지만, 기후가 따뜻한 곳에서는 생육을 계속한다. '팽나무버섯'이라고도 불리는 팽이버섯도 늦가을에서 이른 봄에 걸쳐 각종 활엽수의 고목에서 무리를 지어 자란다. 크기는 작지만 독성이 없고 맛이 좋아 산중에서 일찍이 식용을 해왔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팽이버섯은 톱밥을 이용하여 병에서 키운 것이다.

말똥가리 한 마리가 상승기류를 타고 머리 위를 빙빙 돌더니 나뭇가지에 내려앉아 사냥감을 찾고 있다. 말똥가리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보이는 텃새이지만, 특히 겨울철에 많이 보이는 것은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개중에는 북쪽에서 내려온 철새성 말똥가리도 있다. 말똥가리는 솔개보다 색깔이 연하고, 비행할 때 날개 아랫면의 암갈색 점이 특징적으로 보인다.

태안사 주변에 서식하는 조류로는 박새, 쇠박새, 진박새, 곤줄박이 등 박새류와 쇠딱다구리, 청딱다구리, 오색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등 딱따구리류가 대표적이다. 그 밖에 직박구리, 어치, 노랑턱멧새, 딱새, 까치, 꿩, 물떼까치 등의 텃새들이 그 뒤를 따른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cafe.daum.net/templeeco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2일개강

2008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2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불교학과)

1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이평래(충남대 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최종석(금강대교수)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감상영(승가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태원스님(승가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서성운스님(삼천사주지) · 김형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8년 1월 1일~ 2008년 1월 31일 입학금 2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8년 2월 2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www.insammaket.com

인 삼 마 켓

귀하고 고마운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취급품목 : 홍삼액, 홍삼정, 홍삼편, 인삼, 홍삼청국장, 캔디, 제리, 분말

홍삼생식
학명은 파낙스 진생(Panax : gineseng)은 만병통치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삼의 효능이 최고조에 이르는 인삼만을 선별하여 겉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숙성합니다. 즉 인삼껍질의 바로 안쪽에 많은 망상조직이 존재하는데 홍삼은 이와같이 유효성분을 가지고 있는 표피부분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포닌이 축적되어 효능이 우수합니다.
이런 홍삼을 액기스 추출과정에 90℃이상 고열로 추출하면 쓴맛과 검은색을 띠나 홍삼의 고유한 사포닌 성분과 향기가 많이 소멸되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특수한 제조방법으로 저온에서 72시간 이상을 숙성 발효시켜 만든 제품으로 홍삼 고유의 향기와 색깔을 유지하며 홍삼에 은은한 맛과 달라지는 건강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풍기인삼은 이래서 좋습니다
· 약탕기에 끓여 재탕, 삼탕을 해도 물렁하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 같은 분량을 달여도 다른 인삼보다 농도가 훨씬 진합니다.
· 인삼을 넣어둔 방문만 열어도 향기가 짙게 납니다.
· 육질이 탄탄하여 중량이 무겁고 약효가 뛰어납니다.



저희 풍기정품인삼제조창은
양심을 속이지 않는
정품만을 생산합니다.

영농법인풍기정품인삼제조창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241-2번지
TEL 054)636-2174 FAX 054)638-2177



잃어버린 문화유산을 찾아서

강소연 지음
부엔리브로 펴냄|2만5700원

"이 유물이 어쩌다 예 까지 왔을까?"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쉬운 언어와 작품의 생생한 아름다움을 그대로 전달

불화(佛畵)에는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 영산회상도, 감로탱, 시왕도, 각종변상도, 벽화, 나한도 등 종류도 다양하다. 불화에 담긴 신앙적 의미는 교리와 의식을 포함한 포괄적인 메시지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야 도상에 드러난(혹은 숨겨진) 의미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평범한 불자라면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등장인물이 어떤 분들인지도 모르고 그림의 내용이 어떤 장면인지도 모르기 일쑤다. 자세한 설명을 들거나 책을 통해 공부를 해야 불화의 세계를 이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불화를 이해하기에 적합한 책이 그리 많지 않다. 법당에서 불화를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더더욱 흔하지 않다. 무엇보다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 이전의 불화는 실물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잡기 어렵다. 현재 국내에 전하는 조선 전기 이전의 불화는 10점 미만이다. 반면 일본이나 미국에 흩어진 조선 전기 이전의 불화는 250여점에 달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현실이다.

<잃어버린 문화유산을 찾아서>는 조선 전기 이전의 우리 불화가운데 미국이나 일본의 박물관과 미술관 혹은 사찰이나 갤러리에 소장된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단순한 작품 해설이 아니라 불화 속에 담긴 신앙적 의미와 도상에 드러나거나 숨겨진 의미들을 날날이 풀이해 주고 있다. 저자 강소연 교수(홍익대 겸임)는 <잃어버린 문화유산을 찾아서>에서 불화의 세계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난해한 용어들을 이해하기 쉬운 생활 언어로 대치했다. 또 에세이를 읽듯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미려하고 감성적인 문장으로 불화를 설명함으로써 불화가 결코 '난해한 그림'이 아님을 인식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강 교수 자신도 "현장에서 보는 작품의 생생한 아름다움을 읽는 이에게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밝힌다. 고향이 아닌 이국땅에서 고향의 역사를 간직한 채 새로운 시간에 묻혀가는 우리의 옛 불화들을 찾아다니는 동안 강 교수는 '이 유물은 어쩌다 예까지 왔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자괴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보다는 우리의 옛 불화를 만나는 순간마다 어김없이 한눈에 바로 알아 볼 수 있었다.

그런 감회를 짊어지고 작품 조사에 착수했던 강 교수는 종교화로서의 불화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용해하고 있는 '명작(名作)'으로 불화를 만났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불화를 신앙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 삶의 보편적인 의미선상에서 읽으려는 노력이 묻어난다. <잃어버린 문화유산을 찾아서>는 2006년부터 2년간 현대불교에 '불화 속의 명장면'이란 타이틀로 연재했던 내용을 보완하고 정리한 것이다.

강 교수는 고려대학과 영국의 런던대학, 서울대학에서 미술사와 고고미술사학 등을 공부 했으며 일본 교토대학에서 동양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에는 일본 미술문화계 최고권위학술상인 '국화상'을 수상했고 지난해는 '불교소장학자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임연태 기자





왜 나무아미타불인가

이기화 옮김
불광출판사 펴냄|1만2000원

정토신앙 이해하는데 친절한 길잡이

아미타부처님은 무량광(無量光)과 무량수(無量壽)의 부처님이다. 한량없는 광명은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대자비와 지혜의 빛이다. 한량없는 생명은 아미타 부처님의 수명이 끝이 없고 그 국토(극락세계) 백성들의 수명이 한량 없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유한의 세상에서 번뇌와 집착으로 고통을 벗지 못하는 중생은 무량광 무량수의 가피를 받을 수 없는가? 정토신앙은 어떤 중생이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확신에서 출발한다. 반드시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믿음(信), 반드시 극락에 가겠다는 발원(願), 그리고 극락에 가기 위해 지금 실천하는 수행(行)이 정토 신앙의 근본이다.

극락국토를 건설하고 그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로 모든 중생들을 이끌 것을 서원했던 법장비구가 아미타 부처님이 되는 과정은 어떠했는가? 중생이 극락국토로 왕생하기 위해 어떤 믿음과 발원과 수행을 해야 하는가? <아미타경>은 바로 정토신앙의 근원이 되는 이 두 물음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상세하고 아름답게 답하고 있다. 아미타부처님의 출현과 극락세계의 장엄한 모습,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이르기 위해 닦아야 할 수행이 부처님의 설법으로 펼쳐져 있는 정토신앙의 핵심 경전이 <아미타경>인 것이다.

"만약 착한 남자와 여자들이 아미타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루 이틀 혹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혹은 이레 동안, 한결같이 아미타불 이름을 불러 한마음이 되어 흩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께서 여러 성인들과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신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마칠 때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곧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나는 이러한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 중생들이 이 말을 들으면 마땅히 그 국토에 태어 나도록 발원해야 한다."

중국 명나라 때의 고승 우익 스님은 이 <아미타경>을 불교의 모든 궁극적인 가르침과 중생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제시된 경전이라고 보았다. 우익 스님은 <아미타경요해>를 저술해 자신의 정토신앙에 대한 해박하고 견고한 지식과 의지를 드러냈다. "<화엄경>의 심오한 법장과 <법화경>의 비밀한 골수와 모든 부처님의 심요와 보살만행의 지남(指南)이 모두 <아미타경>에 있다"고 했을 정도다. 과연 우익 스님의 <아미타경요해>는 <아미타경>을 통해 정토신앙을 이해하고 수행의 지침으로 삼는 '명약(名藥)'으로 손색이 없었다. 그 약효는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어서 근대 중국 정토종의 큰 스승인 인광 대사도 "우익 대사의 <아미타경요해>는 사리와 이치가 지극하고 미묘하고 또 정확해서 옛 부처님들이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를 능가할 주석을 달 수 없을 것"이라고 극찬했다.

<왜 나무아미타불인가>는 우익 대사의 <아미타경요해>를 미국의 저명한 불교학자 클리어리(j.c. cleary)가 영역해 출간 한 것을 서울대 명예교수 이기화 박사가 우리말로 옮긴 것. 따라서 <아미타경>과 정토신앙을 이해하는 매우 정확하고 쉬운 길잡이다.

임연태 기자



천천히가 좋아요

쓰지 신이치 지음|이문수 옮김
나무처럼 펴냄|8,500원

왜 천천히 살아야 하는지 아세요?

"사랑이란 아무런 쓸모도 없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상대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다. 즉, 사랑은 슬로(Slow), 천천히 하는 것이어서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때로는 귀찮기 짝이 없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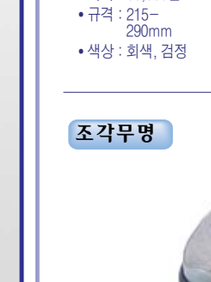
<슬로 라이프>의 저자인 일본 작가 신이치가 왜 천천히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일러주는 에세이집 <천천히가 좋아요>를 펴냈다.

저자는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시간이라는 통념을 천천히 뒤집어 생각할 것을 요구 한다. 바쁘게 살면 오히려 시간이 절약돼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저자는 안타까워한다. 또한 현대인들은 온갖 문명의 편리한 테크놀로지가 주는 '편리함'에 흠뻑 빠져 마치 '편리함이 곧 편안함'인 줄 알고 살아간다. 그러나 아무런 반성 없이 이대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즐거움'보다는 '불편함' 과 '재앙'을 맞을 것이란 경고성 메시지도 이 책에는 들어 있다. 그렇게 길들여진 생활 패턴을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slowdown(천천히)" 행동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일관된 주장이다.

책장이 술술 넘어가는 가벼운 책이지만 전하는 메시지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는 너무도 절박한 현실의 사건들을 대변해 주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수행하며 인체 신비 깨닫는 과정 담아



백두산 성자를 찾아서

김봉규 · 김금화 지음
동아일보사 펴냄|1만3000원

저자는 잘나가던 증권회사 생활을 접고 명상과 의학의 세계로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17년간 국내외 곳곳을 주유하며 불가(佛家) 수행법과 선도(仙道), 요가 등을 익혔다. 이 책은 저자 김봉규씨가 백두산에서 7년동안 명상 수행하면서 음양오행의 이치와 인체의 신비를 깨닫는 과정을 담고 있다. 저자는 책에서 "마음과 몸의 고통을 동요 없이 지켜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고통은 바람과 같다. 사람이 막아서거나 저항하지 않으면 흔적 없이 왔다가 떠나는 것이 바람이다. 그러니 고통을 동요 없이 지켜볼 줄 알아야 한다."고 깨달은 체험을 피력한다.

그렇다면 고통과 번뇌를 동요 없이 지켜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얼핏 들어도 결코 녹록지 않은 것일 텐데 말이다. 저자는 그 방법이 바로 명상이라고 말한다. 명상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이질감과 저항감이 줄어들고 동요 없이 바라볼 수 있다고 소개한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3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4	염불선	덕산	클리어마인드
5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6	행복한 미소	성전	개미
7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8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9	별처럼 사는 법	이시우	우리출판사
10	나마스테, 여기는 붓다의 나라	향덕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살 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총동림동문회)
제7,8대 회장 이 · 취임식 및 정기총회

일 시 : 불기 2552(2008)년 1월 10일(목) 오후 5시
장 소 : 동국대학교 상록원

〈제8대 임원선출〉

◆회 장 : 동인 종후 스님(노적사)
◆수석부회장 : 송묵 스님(동원정사)
법운 스님(청용사)
◆감 사 : 장적 스님(안룡사), 현종 스님(보정암)
◆사무총장 : 벽담 학명 스님(성불사)
◆기획실장 : 연담 법경 스님(건국대병원 불교법당 능인정사)
◆총무부장 : 행문 스님(보광사)
◆재무부장 : 지원 스님(보국사)

사무실 02)735-1053 · 사무총장 011-210-5915 · 총무부장 011-9477-5424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 동문회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 행 화
방한용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발,마춤형 제작
방한용부츠
보아털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50mm
• 색상 : 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특 무 명
지압깔창
발명특허원41435
풍산동 99%
• 가격 : 10,000원
사계절단화
풍산동 99%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17>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장 구연(具緣)

경계가 고요하면 마음도 공적

지관수행을 쉽게 하려면 번잡한 세속 멀리 떠나야

第三得閑居靜處 閒者 不作衆事 名之爲閒 無憒요 故 名之爲靜 有三處可修禪定

이상으로 다섯 가지 인연을 갖추는 가운데 의복과 음식에 대한 문제는 이미 끝났으므로 이제는 고요히 안주하는 처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고요히 안주하는 처소는 물가나 숲 아래 또는 산 바위나 석굴 등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홀로 공부를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경계가 고요하면 마음도 쉽게 공적해지기 때문이다. 한가하다 하는 것은 청정함을 말하는데 이는 세간의 일체 유위법과 서로 호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시끄러움이 없다 하는 것은 일체 번뇌를 멀리 떠남을 말하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좌선을 닦는 것을 고요하고 안정된 처소라고 말한다.

이 문제도 요약하면 세 종류의 처소에서 선정을 닦을 수 있다.

一者深山絶人之處

마음이 한결같아서 혼란하지 않는 상태를 선정이라고 한다. 가령 몸이 심산유곡에 앉아있다 해도 마음이 원숭이나 말처럼 날뛴다면 세속과 다를 바가 없다.

수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공적하고 한가한 처소를 찾는 이유는 처음 발심한 사람은 시끄러운 환경을 떠나야 만이 이익을 쉽게 얻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깊은 숲, 높은 산중에 멀리 떨어져 거처하면서 의복과 음식을 사람들에게서 직접 구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시끄러움도 없어야 한다.

이는 인간세상과 단절해야만 육근이 육진과 마주했을 때 집착심을 일으키지 않고 도와 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존께서 설산에서 고행했던 것도 바로 인간세상과 단절한 경우였는데, 이것을 최상근인이 고요한 처소에 한가롭게 거처하는 것이라고 한다.

二者 頭陀蘭若之處 離於聚落極近三四里 此則 放牧聲絶 無諸憒요

두 번째는 두타행을 수행하는 고요한 처소인데, 두타행에는 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은 이미 설명했던 바와 같다.

청정하고 한가한 처소는 촌락마을과 떨어져 있는 곳이며, 마을과 가장 가깝다 해도 삼리 사리 혹은 십리 이 십리 간격으로 떨어져야만 한다. 이런 곳이어야만 짐승을 방목하는 소리가 단절되고 방목하는 사람까지도 찾아오기가 힘들다. 목동이나 땔나무꾼이 찾아오지 않고 닭 우는 소리, 개짖는 소리까지도 멀리 단절해야만 한다. 그 때문에 "모든 심란하고 시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를 중근인이 한가롭게 거처하는 고요한 처소라고 말한다.

그 옛날 부처님이 세간에 계실 때 다섯 비구가 산에서 수행하면서 공양할 때가 되면 마을로 내려가 탁발을 하고 교화를 하였는데, 마을까지 오고가는 거리가 무려 백리나 되었기 때문에 수행을 못한 채 하루종일 길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와 같이 십 여년 수행을 했는데도 공부에 털 끌만큼도 진보가 없자 다섯 비구는 크게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세존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한 수도인을 교화해서 그들에게 공양을 공급하게 해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심히 행하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을과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시간은 한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야 어느 세월에 공부를 성취할 수 있겠느냐. 반드시 마을과 가깝지도 멀지도 않는 처소를 선택해서 머물러야만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이익이 없는 헛된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三者 遠白衣住處 淸淨伽藍中 皆名閒居靜處

세 번째로는 총림사원 가운데 안주하면서 종일토록 대중과 함께 생활한다면 도를 얻기가 매우 쉽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은 일반 신도를 멀리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스님 대중이 입는 옷은 먹물 옷이므로 세속인의 의복과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정한 가람은 대중이 화합하여 모여 사는 곳이다. 그 때문에 청정한 가람을 모두 한가하고 고요한 처소라고 한다.

여의주를 찾으려면 파랑이 고요해야만 하고 물이 맑아야만 나타난다는 것이 일정한 이치다. 이러한 이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종일 번뇌 경계의 바람에 마음이 요동을 치면서 내 자성 청정한 실상 보배 여의주를 구하려 한다면 여의주는 구할 수 없을 것이다.

第四息諸緣務有四意

다섯 인연 가운데 세 가지 인연에 대한 설명은 모두 끝났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고 나면 네 번째로 세속 일을 반드시 물리쳐야만 도업으로 진수할 수 있다. 가령 몸은 띠집 암자에 머문다 해도 집안일을 하고 있다면 고요한 처소가 분주하고 바쁘기만 하기 때문에 비록 처소는 고요하다 할지라도 고요한 실제내용이 없으므로 역시 도에 이익이 없다.

세속적인 생활에 핍박받거나 또는 세간 사무에 얽매인다면 산속의 고요한 처소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세상과 다를 바 없지만 모든 잡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시끄러운 세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요한 산속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모든 일을 쉬는 데는 네 가지 의미가 있다.

一息治生緣務 不作有爲事業

세간에서는 사농공상 등을 모두 살아가기 위한 생업이라고 하는데, 그 모두는 유위사업에 소속된다. 지관을 수행하는 자라면 유위사업을 멀리 여의고 아울러 세간적인 생산업도 쉬어야만 한다.

二息人間緣務 不追尋俗人朋友親戚知識 斷絶人事往還

앞에 했던 말은 자신을 상대해서 한 말이고 여기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논하는 말이다.

"추구하지 않는다 함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친구들과 교제하고 친척과 왕래하는 것은 본래 세간법이다.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행해야만 한다. 인간의 이익이란 본래 공하고 생사의 일이 크다는 것을 명료하게 통달하여 서로 교제를 맺고 왕래를 한다는 것은 그 모두가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라는 것임을 알아야만 한다. 때문에 반드시 세속과의 교제를 단절해야만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번뇌의 종류-악견(惡見)①

"악견(惡見)은 모든 진리에 대해서 전도된 견해로 잘못 추리하고 헤아리는 교활한 지혜를 말한다. 때문에 선한 견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장애하므로 이로 인해 고통의 과보를 부르는 모습이 그 현실작용의 특징이다."

유식삼십론(唯識三十論)에서는 악견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서술하고 있는데, 이 악견은 활동하는 모습에 따라 살가야견, 변집견(邊執見), 사견(邪見), 견취견(見取見), 계금취견(戒禁取見)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살가야견

'살가야'라는 것은 거짓된, 즉 실재하지 않는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유정들은 이처럼 거짓된 허깨비 아집의 견해를 일으키므로 이것을 '살가야견'이라고 하며, 유신견(有身見) 또는 위신견(僞身見)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등이 모여 임시로 구성된 것인데, 유정들은 이 오온(五蘊)을 실재하는 '아(我)'와 '아소유(我所有)'라고 굳게 집착합니다. 따라서 일체의 잘못된 견해가 이를 근본 바탕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진리를 망각 전도된 견해로 착각
선견 못 일어나게 방해 고과불러

아소는 아소유라고 하는데, 가령 무상한 오온을 실재하는 '나'라고 헤아리고 그것을 이미 굳게 집착하고 나면 다시 그 오온을 진실한 주재자로서의 나의 소유물이라고 집착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소의 집착은 재물 · 명예 · 권세 ·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세계국토 내지는 우리가 평소 옳다 여기고 잘못 집착하고 지닌 편협한 견해까지도 포함되며 이 모든 것을 다 아소유라고 합니다. 아소는 오온에 대한 아집이 있기 때문에 아소유집이 동시적으로 일어나 그 집착하는 모습이 매우 은미하여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잘 관찰해야만 이러한 잘못된 집착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 본다면 살가야견은 아집견(我執見)으로 요약이 됩니다. 아집견은 본래 무아이고 따라서 무상한 오취온에서 그것을 실아실법(實我實法)으로 잘못 분별하고 집착하는 데서 일으키는 전도된 착각의 견해입니다.

이 아집견을 다시 법아견(法我見)과 인아견(人我見)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법아견에 집착한 다음에 인아견에 집착하게 됩니다.

■정리=張如舟

쌍 화 차

피로회복 감기예방에 좋은 쌍화차를 엄선된 약초로 정성들여 끓여 여러 불자님 앞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일물산에서는 일산 수연제, 인사동 모란, 여의나루 하나찻집 등 전통찻집과 각지에 계신 일반 고객들께도 좋은 반응을 얻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저 알리오니 많이 애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팩 ➡ 35,000원 60팩 ➡ 60,000원 [배송료 포함]

❖ 氣를 바로 알면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십수년전 부터 인체 · 나무 · 동물에 어떤 에너지를 접촉했을때 그 변화하는 기운을 시각 촉각 등을 통해서 느끼고 알게되는 능력을 얻어 그동안 저에게 인연이 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번 지면을 통해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서 건강에 도움이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체질개선이 아닌 현재 상태의 기운을 통해 어떤 에너지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 내므로 즉시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내 몸에는 어떤 식품이 맞을까?

내가 먹고 싶은 식품(곡식, 야채, 과일, 고기류, 생선류, 약, 약초, 건강식품)이 내몸에 맞는지 즉석에서 판별해 드립니다. O-Ring테스트나 L로드, 팬드릭 같은 인위적인 매개체 없이 세포가 반응하는 것을 즉시 읽어내므로 틀림없습니다.

❖ 어떻게 하면 통증과 피로감 불편함에서 벗어날까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를 찾아내어 거기에 맞는 식품, 약초, 건강식품 등을 맞춰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며 특히 내몸에 맞는 기능성 맞춤 한방차를 이용하시면 탁월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적용가능 예

- 어린이 : 분유, 이유식 제품선택 ⇨ 아토피 허약체질 : 기피음식 분류
- 청소년 :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식품 분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한방차 선별
- 직장인 : 스트레스, 피로회복, 숙취해소에 필요한 식품 한방차 선택
- 원인을 알수 없는 질병 : 어느 경락의 부조화인지 상담

건강식품, 약초 약재, 신약등을 연구하시는 분께는 인체 적용 반응을 이용하시면 높은 효능과 시간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공동연구도 가능합니다.

세일물산 02)965-4413

"신수비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법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보응당 문성→회응당 상균→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작심삼일 안되려면 무리한 욕심 버려요



작은 차이가 성공을 부른다

1년은 365일. 시간으로는 8760시간이다. 분으로는 52만5600분. 3153만6000초다. 할 일 없는 사람에게는 지루한 세월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짧은 순간이다. 1년 시간을 짧게 느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거나 성공할 사람들로 그들의 생각은 긍정적이고 행동은 구체적·적극적이다. 이들의 성공은 계획이 거창해서가 아니다. 치밀한 계획을 갖고 짧은 시간을 쪼개 매일매일 실천한 결과다.

예를 들면 영어 단어나 경전 문구를 하루에 5개씩 외운다면 1개월이면 150개, 1년이면 1800개다. 매일 10분씩 참선을 한다면 1년이면 60시간, 약 3일을 정진한 것이 되고, 매일 30분씩 조깅한다면 221kal가 소모된다. 한 달이면 3~4kg 감량할 수 있고 1년 동안 하면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신년계획은 계획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얼마나 오래 꾸준히 실천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년계획 무엇을 세우나

신년계획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학생은 학업 계획, 직장인은 재테크 계획이 대부분이지만 연중 계속되는 다이어트 계획도 빠질 수 없다. 신년에 주로 결심하는 네 가지를 모아봤다.

▲자기계발: 배움과 수행에는 끝이 없다. 학생이면 당연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도 외국어, 자격증 등은 항상 염두에 둔다. 불자라면 수행이 생활에 스며야 함은 물론이다. 배움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수행은 자아 회복과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신년계획 단골 메뉴다.

▲금연·금주: 연초면 건강을 위해 금연과 금주를 선언하는 사람이 많다. 아예 끊겠다는 사람도 있고 반으로 줄이겠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다보면 웬만한 각오가 아니고서는 이루기가 어렵다.

▲다이어트: 1년을 통틀어 가장 많이 세우고 또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획 중의 하나다. 연초에는 새해니까, 봄에는 여름 물놀이를 대비해서, 여름에는 당장 급해서, 가을·겨울에는 또 다음 여름을 기약하며 계획을 세운다. 남녀 구분도 없다. 하지만 소문 중에 '헬스장들이 1~2월 가입회원 때문에 1년 먹고 산다'는 말을 보면 작심의 대가가 고액 지출로 이어져 주의가 필요하다.

▲재테크: 내 집 마련 등 목돈 준비를 위해 부자 되는 꿈을 키우며 적금 들기, 펀드 가입하기, 가계부 적기 등 많은 계획이 세워진다. 하지만 때때로 강림하는 지름신의 유혹은 뜻하지 않은 지출로 이어지고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재테크가 성공하려면 목돈 마련 계획과 구매계획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

신년계획 기도하듯 이뤄보자

연초에 세운 계획이 용두사미처럼 작심삼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킬 수 있는 만큼 짜임새 있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짧진 계획으로 10kg 체중감량과 함께 2000만원을 모은 김주희(34·서울 용산동)씨에게 비결을 물었다. 김씨는 "예전에는 세운 계획이 한 달을 못 넘겨 주위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았다. 하지만 1년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열두 달로 나눈 뒤 다시 매주 단위로 세분화했다. 운동량·식사량과 함께 저축·지출을 매주 점검하다보니 어느새 목표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씨의 성공비결은 최소 시간으로 세분화해 계획을 계속 점검하고 실천한 덕분이다.

염석훈(36·서울 구의동)씨의 경우는 무리한 계획으로 실패한 사례다. 지난해 매일 108배하는 원을 세웠다. 염씨가 108배를 한 날은 고작 3일뿐이었다. 직장생활로 바쁜 것도 이유지만 이틀 절하고는 다리가 아파 108배하기를 그쳤다는 염씨는 "108배를 자주 해본 적이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 실패 원인 같다"고 말했다. 자신의 몸 즉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실패했다.

박지숙 소장(명상·두뇌치료연구소)은 "염씨의 경우 김씨처럼 세부적으로 나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 소장은 또 불교 기도를 신년계획에 적용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목표를 서원삼아 근기에 따라 3일·7일·15일 기도 등으로 짧게 여러 번 나눠 실천해보는 것도 좋다. 또 기도 끝엔 회향을 하는데 이것이 나뿐 아니라 남을 돌아보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차츰차츰 행이 뒤따르다 보면 100일, 1000일까지 지속할 힘이 길러질 것"이라며 쉼 없는 실천을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신년계획 연말까지 이어가는

▲**계획은 짧게 자주 세워라**=실천 가능하도록 짧은 계획을 자주 세우자. 또 계획이 틀어졌다면 자포자기 말고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다시 계획을 세우자. 작심삼일도 120여회 반복하면 어느새 1년이다.

▲**호시우보(虎視牛步: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걸어라) 하라**=실천하지 않는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다. 호랑이가 사물을 뚫어지게 쳐다보듯이 계획에 집중하고, 소처럼 걸음은 무겁고 신중하게 실천한다.

▲**수시로 결과를 체크한다**=계획의 실천 정도를 수시로 체크한다. 매일이면 더 좋다. 실천 여부와 실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습관을 기른다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길 것이다.

▲**돈을 이용하라**=많은 주변 사람에게 계획을 알려라. 친구나 가족에게 계획 실패 시 일정액을 벌금으로 내겠다고 공언한다면 모두들 내 의지를 지켜봐줄 것이다.

▲**잘 보이는 곳에 계획을 크게 써놓자**=계획한 것을 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잘 보이는 곳에 계획을 적어놓고 수시로 확인한다. 여러 번 반복해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혼자가 어렵다면 여럿이 함께 한다**=마음 맞는 친구가 있다면 계획을 함께 실천해보는 것도 좋다. 하지만 여럿이 함께 그만두고 딴 짓 하기도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



15. 노안이란

세월이 가면 계절이 바뀌듯, 우리 몸도 세월과 함께 기능과 형태가 변화한다. 눈은 우리 신체 중에 노화가 가장 빨리 오는 기관 중 하나이며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비교적 정직하게 변화가 나타나는 기관이다.

우리 눈의 수정체는 카메라의 렌즈처럼 거리에 따라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조절 기능이 있는데 이는 모양체근의 수축과 이완에 의한 수정체의 두께 변화로 수정체의 굴절력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점차 모양체 근의 수축력과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져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를 노안이라고 한다. 눈의 근거리 조절력은 30대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보통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는 조절력이 독서거리까지 감소하는 40대 중반 전후가 된다. 이 시기 부터는 책이나 신문을 읽는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어두운 곳에서는 책보기가 힘들어진다.

30대부터 눈 근거리 조절력 점차 감소

레이저 노안교정술 등 新치료법 개발

많은 사람들이 노안은 가까운 곳이 안 보이는 것만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 노안 초기에는 좀 더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즉 근거리 시력에는 이상이 없으나 남아있는 조절력을 최대한 사용하기 때문에 책을 조금만 읽어도 눈이 피로하고 머리가 아플 수 있다. 또한 처음에는 잘 보이다가 조금 지나면 차차 흐려져 계속 읽기가 어려워지도 한다. 때로는 책을 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먼 곳을 보면 물체가 금세 초점이 안 맞고, 반대로 먼 곳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책을 보면 처음 얼마동안은 초점이 맞지 않아 잘 안 보이기도 한다.

노안이 시작되는 40대 초반에는 본인의 조절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근거리 작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자라는 조절력으로 억지로 가까운 곳을 보려고 무리를 하기 때문에 쉽게 눈이 피로하게 된다. 이 시기에도 인위적으로 조절력을 보충해 주면 그만큼 눈의 피로를 막아줄 수 있으므로 노안이 시작되는 40대 초반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안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돋보기안경 착용이다.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원근용의 이중초점렌즈도 있고, 원근렌즈의 도수에 경계선이 안 보이는 누진 다초점렌즈도 있다.

최근 백내장 수술 후 조절이 가능한 인공수정체를 삽입함으로써 한꺼번에 백내장과 노안을 교정할 수 있게 됐다.

노안을 교정하는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노안교정수술이 있다. 과거 레이저를 이용하여 근시, 원시, 난시를 교정하던 라식 수술이 레이저 장비와 여러 계측 장비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노안까지 교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른바 노안라식으로 불리고 있는 이 수술은 노안 교정 뿐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근시, 원시, 난시 등의 굴절이상을 동시에 교정하므로 안경 착용자들은 안경을 벗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안까지 회복될 수 있는 수술이다. 수술 조건으로 백내장이 동반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각막상태를 비롯한 여러 검사에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라야 한다. 최근 1~2년 사이 대체로 만족스러운 임상 경과를 보이고 있어 노안 치료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김준헌**(소중한안과 원장)



김준헌 소중한안과 원장은 고려대 의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의대 부속병원 안과 전공의, 전임의를 수료했다. 또한 일본 교토대에서 의대 각막, 시력교정수술 연수를 마쳤으며 현재 고려대 의대 부속병원 안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본 체류수행자 입방안내

대상

비구,비구니,법사(남,녀),포교사

조건

1. 입방자는 학력, 연령제한없음
2. 3년수행후 본종단에 입방을 원할시에는 영구 상주 가능
3. 입방 상주자에게는 생활보장 영주권 취득시까지 행정적 지원함
4. 일본에서 사찰 개원하고자하면 본 종단에서 적극 지원함

문의

– 한국 연락처
◆ 휴대폰 010-9292-4828(명안스님)
팩 스 031-735-3374, 043-731-6453

– 일본국 주소
◆ 우편 619-1401 日本國 京都府 相樂郡 南山城 村童仙房 8番地 總本山 高麗寺
이메일 mandeuk@yahoo.com
◆ 일본 직통 휴대폰 090-3719-1571
전 화 0743-93-0843
팩 스 0743-93-0670
◆ 우편 544-0033 日本國 大阪府 大阪市 生野區 勝山北 5-12-39 大本山 普賢寺
전 화 06-6712-1015, 1016
팩 스 06-6741-1755

중앙불교대학원 학인(승려, 행자) 모집

◆ 모집학과 : 사미과 6개월 과정
(3개월 기본교육 – 습의, 3개월 통신교육)
◆ 원서접수 : **2008년 1월 5일까지**
◆ 개강일시 : **2008년 1월 7일 (월요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본, 사진 5매
◆ 자격요건 :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
◆ 특 전
– 6개월 기본교육 이수 후 사미계 수계득도 하도록 지도하고 사찰(포교원) 창건 시 초심자라도 여법히 법회를 봉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 졸업 후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지속됩니다.
◆ 사미과 교수 : 현봉
(통도사 출가, 보광선원 금당선원, 現 무사암 주지)
◆ 수강료 : 일백오십만원(지도비, 삼개월 숙식제공)
◆ 문의처 : 본 대학 사무국
(대표전화 031-676-0908 / 팩스 031-676-020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2008학년도 신입생(대안·위탁)모집

고등과정 (학력인정)
■ 3년제 : 중학교 졸업자
■ 2년제 : 성인 단기 졸업과정
(불교음악, 불교미술 전공)
•학령기를 놓치신 20세 이상 주부 및 기타
•중도 포기 학생 (전·편입) 가능

중등과정
■ 청소년, 일반 : 2년 단기과정

▶ 기숙사 생활 가능 ◀

모집기간 : 2007. 12월 ~ 2008. 1월 한함
모집인원 : 00명
입학원서 : 홈페이지 '입학자료실'에 탑재

문의·상담 : 055)583-6300
010-7770-9290 (행정실)

위치 : 경남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1124번지 (미륵사 내)

홈페이지 www.yeun.sc.kr

학력인정 연꽃자유고등학교장

기치유란 무엇인가?

최근 기치유에 관심이 높아지는데 반하여 일반인들은 물론 통합보완의학(대체의학)분야에 종사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 조차 기치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치유를 어떤 종교와 연관된 것으로, 무속인들이 귀신을 쫓는 방법으로, 안마나 지압의 일종으로, 최면이나 심리치료의 연장성으로 등등 많은 오해와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 보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기치유는 서구에서 healing touch, energy healing 등으로 불리는 통합보완의학의 한 분야의 치유 방법을 말합니다. 기치유사가 환자의 신체에 살짝 손을 대거나 약간의 거리를 유지한 채 자신의 치유 에너지만을 방사하여 병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몸을 만지거나 주무르는 등의 행위는 일어나지 않으며 주문을 외우는 등의 주술적인 방법도 쓰지 않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정통 기치유만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9주 과정의 수련을 마치면 기치유 능력을 갖을 수 있으며 자신의 병이나 가족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게됩니다.

한국 기치유 연구회에서는 2008년부터 수련비를 대폭 낮추어 누구나 부담없이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기치유 방법을 배워서 기치유에 대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의식을 갖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기치유가 가정의학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치유법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기치유 양성반 35기 개강!

개강일자 2008년 1월 12일(토) 오후 2 : 00 ~ 4 : 30
수련회비 ~~99만원~~ 58만원 (9주, 매주 토요일)

수련지도 : 윤한흥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주)명상신문 논설위원
참고서적 : 기치유와 기공수련 / 기치유학(윤한흥 지음)

한국 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02-3482-5032 www.gichiu.com

특별상 수상作

시비회 가을 수련법회

서울 노원구 상계9동 서용칠(68세)



그림:문병성

깜깜한 밤중 중생들의 탐내는 마음·성내는 마음·어리석음 깨워
무명번뇌를 녹아내려 주는 목탁소리는 새벽 하늘가에 가득차

단 풍

日光에 물들었나 천지가 滿山紅葉
단풍아 자랑마라 세월이 노을진다
오늘밤 푸른月光이 萬山에 파란낙엽 이루리

여기는 46번 국도, 경춘선을 달리며 가다보면 남이섬과 열십자로 갈리는 조종천을 만나게 된다. 왼쪽으로 급하게 꺽으면서 북으로 내달리면 가평 현리 일광사에 당도하게 된다. 올가을 회원들과 나선 수련회는 10여 년째 거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시비회(施悲會)는 서울 동산불교대학을 1998년에 입학하여 2년간 공부하고 졸업한 12회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수행과 자비 모임으로 군종교구에 등록한 어엿한 신행단체이다

그립다 보고 싶다는 사랑의 약속도 조그마한 의견차이에 방파제 앞에서 사라지는 파도와 같고 굳은 언약의 우정도 하찮은 이익에 작아지는 것이 우리네 살림이다. 그러나 시비회의 도반은 한뜻으로 같이 가는 길이기에 길 없는 길도 함께하고 길 위에서 쉬지 않으며 이 길이 끝나는 날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그네도 되어주고 친구도 되어주고 연인도 되어주고 선지식도 되어주는 참으로 소중한 인연의 끈을 쥐고 있는 것이다.

오늘밤 일광사(日光寺)에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인연의 그물코를 청실 홍실로 얽어 놓았은가. 또한 스님은 속세에서는 한때 도반으로 같이 공부한 인연이 있었다.

이번 수련법회 길에는 나의 내자도 함께 하기로 마음을 냈다. 뇌동맥 혈관 수술과 심장시술로 인해 15년 세월을 불편한 몸으로 생활했기에 남 앞에 서는 것을 꺼려하고 더욱이 장거리 여행은 가족 나들이 이외는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뜬금없이 "어제 어디론가 훨훨 가고 싶어 문을 나섰는데 막상 갈 데가 없어 우두커니 서 있다가 방으로 다시 들어왔다"면서 눈물을 훔치는 것이었다. 좀처럼 마음을 밖으로 보이지 않는 그는 시각장애 2급이요 뇌병변 4급으로 혼자서의 나들이는 동네 밖을 벗어날 수 없는 일이다.

너의 아픔은 내 수행의 부족이요 네가 이렇듯 고통을 받는 것은 나의 아픔으로 너와 나의 공업이다. 지난 세월 아무리 아파도 짜증한번 내지 않았고 아무리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늘 웃는 모습으로 가족을 대하면서 희망과 꿈을 갖고 밝게 살아온 터였다.

그것이 고마워 나는 포교사가 되어 군법당에 10여 년째 포교를 하고 있으며 요즘은 국제포교사의 원을 세워 공부하느라 토, 일요일은 늘 집을 비우고 다녔다. 수요일은 문학회에서 문학기행으로 혼자서만 쏘다닌 것이다.

올 여름부터는 조계종 포교사단 사무국에서 오전 자원불사로 컴퓨터관련 일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라는 말 대신에 나는 자원불사(自願佛事)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혼자 집에서 지내는 내자의 외로움을 눈치 채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던 것이다.

집결지 양재역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하였다. 서울에서야 해거름으로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구름도 바라보고 강물구경도 하고 강변의 자갈들과 이야기하며 당도하니 땅거미 지는 해질녘이었다.

파르스름하게 무명초를 다듬은 머리에 해맑은 소년처럼 웃음 지으며 동구 밖까지 나와 스님이 반겨주었다. 스님께서는 수행의 결과로 얼굴 모습과 성품이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자기 얼굴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며 내 몸값은 내가 매기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정가표를 붙이는 것은 아닌듯하다. 가을걷이를 끝내지 않은 너른 텃밭에서 손수 일구어낸 농작물은 완전히 일년을 살 수 있는 자급자족의 생활이었다.

저녁 공양 때는 내가 산사에 온 것인지 처갓집에 온 것인지 푸근한 것이 음식맛이 시골 큰 아주머니의 손맛이었다. 동치미 국물은 시원한 것이 일품이요 도토리묵은 그 어디에서든 비교가 안 되는 맛이요 된장찌개는 농익어 한껏 내음과 맛을 자랑하였다. 숭늉은 노르스름한 것이 치자물 들이고 들기름 바른 옛 우리네 장판지 색깔이며 입안에서는 낙엽 태우는 구수한 맛이 감돌았다.

저녁예불 올리고 각자의 신행생활과 스님의 사시는 모습을 들려줄 때는 친구이며 우정 어린 도반으로 느껴졌다. 아무려나 풍광이 좋고 부처님 모시고 청정수행하며 외부와 단절된 삶이 오히려 부러웠다.

우리 도반들은 불도(佛道)의 길을 같이하면서 불교만이 갖고 있는 서로의 속내를 묻지 않고 말하지 않고 굳이 알려하지 않으니 그저 알음알이로 지내는 터이다. 해서, 이런 날이라야 자기의 생활이나 생각을 말하고 물으니 조금씩 숨통을 열고 사는 것이다.

이야기꽃에서 잠시 벗어나 산사에서의 깊어가는 가을밤을 보려고 내자와 밖으로 나오니 싸늘하면서도 상큼한 밤공기의 향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가로등, 보안등으로 인해 별을 볼 수 없는 별 볼 일없이 살아왔지만 그래도 이곳은 별들이 제법 열려있어 가을별이 초롱초롱한 소녀의 눈망울 같았다.

산사의 밤은 깊어가고 사하촌의 컹컹 개 짖는 소리도 별빛에 반사되어 흩어지건만 잠은 오지 않고 살아온 지난날들이 별빛처럼 더욱더 명멸(明滅)한다. 보살들의 건넛방에도 아직 불이 꺼지지 않고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이어지고 산사의 밤을 보내는 내자의 심정은 어떠할까 궁금하였다.

아마도 금생뿐 아니라 다음 생에도 우리 보살과 부부의 인연으로 산사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이 밤 지새우는 것으로 만족해야할 것이다.

언젠가 병실에서였다. 우리 다음 생에도 부부의 인연을 맺고 또 살자고 하였다. 그는 싫다고 거침없이 일언지하에 끊는 것이었다. 의외의 답에 깜짝 놀라 아니 내가 왜 싫은가? 나와 살아온 세월이 원망스러운가 하고 다그쳐 물었다. 자기는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 대학도 다니고 유학도 하고 금생에 못 배운 한을 풀고 연애도 멋지게 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나에게 여자가 되어주면 한세상 살아주마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로 인해 당신에게 너무 많은 고생 시켜드려서 그 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1993년 이른 봄 당신이 첫 수술을 받고 뇌압이 떨어지지 않아 한 달 이상을 중환자실에 있을 때 나는 부처님께 나의 시신과 장기를 모두 내놓을 테니 우리 보살 살려 달라 절규하였다. 수술 후유증으로 오른쪽 눈을 실명했을 때는 내 마음도 몸도 깜깜하였다. 지금까지 그 후유증으로 나는 당신 목욕시켜주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언제 내가 내색하였던가. 차라리 한강 백사장에서 바늘을 줍지! 나 역시 여자는 싫었다. 나는 삐져가지고 우리보살이 나와 짝을 안 해준다면 다음 생은 홀아비로 살망정 악연의 시절인연 맺지 않으리라 마음 다진 적이 있었다.

우리는 스님을 홀아비라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목숨을 내어 줄 수 있는 친구로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 금생 보살과 함께한 40여년의 세월이 활동사진처럼 연상 꼬리를 물고 일어나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깊어가는 산사의 가을밤이었다.

또르륵 똑똑, 또르륵 똑똑,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아련한 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지고 이어지고는 다시 끊어진다. 어디서 들어본 소리인데 꿈인가 생시인가 이곳이 어디인가 아득한 기억 속을 더듬는 찰나 굉음의 소리에 벌떡 일어나 시각을 보니 새벽 3시50분. 스님께서 도량석을 하고 있었다. 허둥지둥 우물가로 나가 눈곱을 떼고는 합장하고 스님의 뒤를 따르며 경내를 돌았다.

미명의 캄캄한 밤중이지만 중생들 탐내는 마음, 중생들의 성내는 마음,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무명번뇌를 녹아내려 주는 목탁소리는 새벽 하늘가에 가득히 차고 넘치고 있었다.

160cm에 55kg의 이 물건은 누구인가?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묻는 말에 나는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물건 하찮은 미물 같으나! 신(身) 구(口) 의(意)가 마음을 내면 능히 이 우주를 창조하기도하고 단박에 내 손안에 넣어 부셔버릴 수도 있는 감히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불가사의(不可思議)의 힘이 있다.

상념에 젖어있을 때 천지가 너무 조용하여 보니 도량석은 끝나고 쇠북종소리 은은하게 들려 법당에 앉으니 천년의 미소 부처님이 나를 안심케 하여주고 있었다.

오냐! 금생에 이루지 못한 꿈 다음 생에는 꼭이 이뤄야지!

한켠에서 정법과 자운우등이 나직이 찬불가를 부르고 있었다. 음성공양으로 군법당에서 병사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인기 좋은 이들이 새벽법당을 가르는 소리에 나도 함께 불러보았다.

무슨 원이 이리 많아 내 눈에는 주르륵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www.njutcm.edu.cn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조기유학생 모집
초 6 · 중 · 고 1, 2, 3학년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20명 (내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 사 과 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8년 1월 29일**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 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학림**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006년 본과 합격자 명단

– 본과 합격자 –

▲강민정(경희대학원) ▲이거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이정화(건국대) ▲서연호(한국항공대) ▲ 박병수(명지대)
▲박영문(명지대) ▲강성우(호남대) ▲이경환(배제대)
▲이종환(우석대) ▲김재문(경남대) ▲최종건(UCLA)
▲황진영(유성여고) ▲이창영(마산고) ▲ 황성환(대건고)
▲정재형(성문고) ▲박상준(구정고) ▲이상훈(성신고)
▲박민수(화수고) ▲이원영(동지고) ▲김인환(인항고)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민성(휘문고)
▲김준호(배문고) ▲김정우(현대고) ▲박은수(대덕고)

– 석사과정 합격자 –

▲신병룡(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호(경희대 한의학과)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종(북경중의대 한의학과)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 광 대 한의대학
대 전 대 한의대학
삼화불교 대 학 림

한국 총장 손혜인



자기 주처를 믿고 세상을 한번 새롭게 걸어보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천당 지옥이 따로 있다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짊어지워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땐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내놓고 남한테 보시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진짜 자비한 보시라면 길에 가다가도, 옹기종기 애들을 데리고 추운 데서 떨고 있거나 더운 데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거나, 쫓겨나서 집을 얻으려도 돈이 모자라서 못 얻고 오갈 데 없이 헤맬 때 그냥 아무거라도, 하다못해 재를 지내 달라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주는 게, 그게 재를 잘 지내 주는 일이죠. 그게 진짜 보시지, 내가 한다는 게 없이 해야 보시지 내가 한다고 하고 내가 했다고 하고 보시하는 건 보시가 하나도 안돼요. 자기한테 요다음 생에, 세세생생의 예금통장이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같이 살고 더불어 둘이 아닌 까닭에, 나를 내가 도운 건데 나를 위해서 내가 한 건데 누구한테 잘했다 못했다 하겠습니까? 가게 물건을 사러 갔을 때에 물건을 하나 샀으면, 얼마짜리든 돈을 주고 물건을 샀으면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단 얘깁니다.

이런 거와 같이 여러분은 정신계를 좀 더 추구해서, 나를 지금 이끌어 가는 놈이 누군가, 나를 공부하게 하는 놈이 누군가, 나를 군대에 입대하게 하는 놈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있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누가 갖다 넣은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 가는 것도 아니죠. 행복을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서 행복한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 하라 말아라 한 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생겼으니까 하게 된 거죠. 그러니 그렇게 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냐는 얘깁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속에,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는 천차만별의 말 뜻 행,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블랙홀이라는 그 큰 별성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이 지구가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행성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태양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부처님께서는 "만 명이 깨달아도 일불이니라. 그 일불의 마음은 바로 내가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혹성이 팽창이 되거나 타 버린다거나 이래도 내가 그것이 되는 까닭에 내가 나를 죽이는 법은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수명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이 한 가지를 비롯해서 일체 만법을 다 알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억겁을 통해서 나온 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다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근본적인 나!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벌어졌다. 나로 인해서, 바로 참나로 인해서 껍데기인 나가 지금 기계처럼 움죽거리고 있다. 그러니 움죽거리는 것도 그 속에서 작용을 해서 움죽거리게 하니까 '내가 움죽거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음이 발전되면…, 옛날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저쪽 군사는 천 명인데 이쪽에는 오백 명밖에 안 됐답니다. 그래 그것을 다 해결을 하기 위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생명들의 의식을 모두 투입했습니다. 자기 군사들 오백 명한테 투입을 하고 또 그쪽에는 그쪽대로 투입을 해서, 모두 자기 군사가 아닌 줄 알고 싸워서 오백 명을 다 해치우더랍니다. 이거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물체가 오면 '아! 저기서 오는구나!' 이렇게 보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거는 누가 덜미를 쳐도, 누가 모가지를 친다 하더라도 못 보니까 몰라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군사 오백 명을 가지고 천 명을 이겼는데, 죽인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싸움이 멎고 편안하게 잘됐더랍니다. 피리 하나를 가지고도 그렇게 했고,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를 군사로 만들어서 투입을 해 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럼 지금 발전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대로 천차만별의 그 마음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마음은 한계가 없어서 허공에 하나의 마음이 꽉 찰 수도 있는 거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니까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해도 모두 해 보지 않았으니까 아리송하고 모르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맛있는 자장면을 안 먹어 보고 얘기도 들어 보지 않았더라면 먹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먹어 보고 해 보고 했으니까 그게 하고 싶고 먹고 싶지,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하고 맛도 모르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 들었다면 그건 아마 발전도 할 수 없고 먹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항상 '너만이, 너만이 할 수 있어.' 하면서, 바로 아까 컴퓨터 얘기 했죠? 구정물이 나올 때는 거기다 '구정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너니까 구정물이 안 나오게, 맑은 물 나오게 하는 것도 너야.' 하고 되입력을 한다면 구정물이 바로 말간 물로 화해서 나옵니다.

그런 것과 같이 팔자 운명은 없습니다. 모두 살기도 힘든데 여기 뭐가, 이사 가는데 손이 있어서 못 간다, 날짜를 봐야 한다 이러는데, 뭐가 있다고 날짜를 봅니까? 내가 '어느 날이 좋겠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날로 이사를 하는 거고…. 이 한마디로 다 아셔야 됩니다. 재 지내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들으시라고 이러는 겁니다.

> 내가 죽어야
> 모두 한마음이 되는 거지
> 내가 죽지 않는다면
> 한마음이 어떻게 되며
> 내가 베풀지 않는데
> 어떻게 상대에서 베풉니까?
>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재를 지낼 때도 떡 하나면 됩니다. 물, 초, 향, 떡 하나. 왜냐하면 그 살던 의식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버둥거리다가 갔는데 또 먹는 거를 갖다가 상에 놓고 의식적으로 항상 붙들어 매놓는다면 이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말려서 승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해도 아니 되고 너무 차려 놔도 아니 되고 그냥 떡 하나면 족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떡 하나 가지고 다 먹고도 그 떡이 되남는데 말입니다.

이 도리를 알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모두 여러분이 마음속에다가…, 급하면 그렇게 차려 놓고 할 사이도 없죠. 상황에 따라서 급하면 그냥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여기다가…. 조상도 전부 한 줄에 꿰여 있어요. 콩 종자라면, 콩씨라면 콩씨대로 놓여 있고 팥씨라면 팥씨대로 모여 있지 콩씨하고 팥씨하고 섞어 놓는 법 봤어요? 과일도 전부 끼리끼리 모아 놓으면서도, 그것도 큰 것과 작은 걸 골라서 또 놔요. 인간 자체 살아나가는 것도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모이고, 기사님들은 기사님대로 자동적으로 모이고, 군인은 군인대로 자동적으로 모입니다. 아, 한번 보세요, 안 그런가. 제가끔 다 저절로 자동적으로 모여서 살죠? 그리고 더불어 도와 가면서 살죠?

만약에 옷 짜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옷을 지금 어떻게 입고 있으며, 농사짓는 사람이 없다면 농사지은 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먹고 지내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농사짓는 데에 가면 농사꾼이 높고, 배 타는 데 가면 뱃사공이 높고, 옷 짜는 공장에 가면 옷 짜는 공장 주인이 높고, 모두가 제각기 높으니라. 그래서 평등하니라." 하고요. 요새 내가요, 치아가 빠져서 치과에 가니까 치과 의사, 원장님이 제일 높습디다. 거기 가니까 내가 아주 밑에, 딱 그냥 밑으로 가 버리잖아요. 하하하….

그러니 이 만물만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가는 어버이라면 소 또는 말, 사람 등 어느 차원의 도량이든지 다, 그 도량에 가면 내가 그게 돼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얘야, 소를 건지기 위해서는 내가 소 속에 들어가서 내가 소가 돼야 하느니라. 그렇지 않다면 소가 저항력을 느껴서 한마음이 되지 않느니라. 내가 소가 돼야 소도 나에게 저항력을 느끼지 않아서 한마음이 되니까 건질 수 있는 건데, 안 그러냐?" 하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러니 소뿐이 아닙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우주 또는 별성, 태양, 어느 혹성이라 할지라도 어느 거 하나 아니 되는 게 없이 되는 거죠. 저항력을 느끼지 않게끔 하나가 돼야 건지죠.

사람 하나 건지는 데도 내가 그 사람이 돼 줘야 건져지는 거지 내가 잘났다고 그 사람을 끌려고 애를 쓰면 절대로 그건 이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모두 한마음이 되는 거지 내가 죽지 않는다면 한마음이 어떻게 되며, 내가 베풀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에서 베풉니까?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여러분도 다 그렇고, 또 각자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지옥에 갈 땐 지옥고에 있는 거고 또는 중세계에 갈 때는 중세계에 있는 거고 상세계에 갈 땐 상세계가 주어지는 거니라. 그러니 어느 것이 내가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했다고 할 게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온 자리도 없기 때문에 갈 자리도 없느니라." 하고요. 보세요!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모습만 잘나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모습과 차원이 주어지죠. 주어지는 모습과 차원은 자기가 한 대로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은 중세계다. 하천세계로 떨어지거나 상세계로 올라가는 중세계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니까 공부를 해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너 먼저 알아라.' 이런 거죠.

그러니 소년 소녀 가장 돕기라고 하지만 그게 내 자식들입니다. '예전에 내 자식이었을 때 그렇게 불행했었고, 예전에 나였을 때 그렇게 불행했었고, 그러니 그 아픔을 어찌 다 말로 하랴!' 하고 그것을 내 아픔처럼 생각해야 되고, 물질적인 보시도 해야겠지만 정신적인 보시가 또 있습니다. 정신적인 보시는 둘 아니게 같이 하는 공덕을 쌓은…, 그 쌓은 것도 없는 것이 공덕이죠. 공덕을 쌓은 그거를 한마음으로 같이 한다면 차차차차 그 애들이 잘되고, 마음들이 이리로 가서 나쁠 거를 저리로 가게 만들고,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게 마음 보시입니다. 그래서 하는 사이 없이 하는 것이 마음의 진짜 자비한 보시인 것입니다. 그런

☞16면으로 계속

출강 및 통신

2008학년도 제17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7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8학년도 제17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교육원 • 제주 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8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사무국(우편 · 팩스 접수가능)
부산교육원(☎051-466-1959) · 제주교육원(064-751-1959)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 · 각종 마이크 · 스피커 · 앰프 설치 · 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 수록)

디지털마이크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엠프 시스템





각종 마이크 시스템(에코가능)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하는 사이 없이 하는 것이 마음의 진짜 자비한 보시!

☞15면에서 계속

데 마음 보시를 해서 잘되기 전에 벌써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애들이 또 활력이 없으니까 우선 먹을 걸 줘 가면서 정신적으로 보시를 해 줘야 잘될 거 아닙니까?

원주에서 이런 예가 있었죠. 원주 경찰서 앞에 어떤 미친 여자가 말입니다, 만날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 그 경찰서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장이나 뭐 어떤 분이 나오든지 간에 그냥 차를 막고는 휘방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붙들어서는 그냥 저기다 내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도 연방 거기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상원사 토굴에 있을 때인데 내려갔다가 아이, 거기서 만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야이, 똥개 새끼야!" 허허허…, 그때만 해도 똥개 같았죠, 뭐. 찢어진 바지에다가 그냥 밀짚모자 하나 쓰고서 그냥 몸은 뭐, 개미허리 같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세상에 자기 아버지도 없고 노모 한 분밖에 없는데 그 노인네도 병자예요. 그래 가지고는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날부터 먹는 거나 용돈을 다 대 주면서 마음의 보시를 했던 겁니다. '과거에 수억겁을 거쳐 올 때에 나는 저렇게 안 했을까? 바로 옛날의 내 모습과 같구나! 그때 나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부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걸어왔지.'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경찰서 앞을 만날 쓸라고 그랬습니다. 빗자루를 주고 말입니다. 자꾸 쓸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을 들어요. 그냥 만날 아침마다 나와서 거기를 쓸고 그러더니 아주 나아서요, 지금은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요. (대중 박수)

그런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면서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대치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이루종차 말을 해서 대치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어떠한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걸 떠나서 내가 변소에 있으면 주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변소에 있다고 해서, 더럽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더럽고 깨끗하고 이거를 떠나서 항상 내가 있는 자리에 부처님은 계시다는 걸 아셔야 하고, 또 기독교 믿는 사람은 내가 있는 자리에 바로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이란 뜻은 몸, 이 안에서도 더불어 같이 살고, 내가 따로 없이 더불어 살고 바깥에서도 내가 따로 없이 더불어 같이 사니 어찌 그것을 말로 해서 한 인간의 이름으로 지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불어 같이 내가 아니 됨이 없이 내가 되는 그 한마음을 규정지어서 부처님이라고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라고 한 것도 역시, 여러분 몸속에 의식들이 모두 같이 하고 있으니 한마음으로 같이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마음이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기가 표현하자니까 '님' 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면, 나를 다스려 가는 나를 안다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 하나로 돌아가는 도리를 알 수 있다 이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내가 없다면 하나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도 없으니까요.

나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각자 너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도깨비장난이요 귀신 놀음이니라." 이런 말을 한 것을 '각자'라는 소리를 안 해서 모두 편집이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하죠. 부처님은 똑바로 말씀해 놓으셨는데…. 부처님께서도 "각자 너 자체를 모르면서 타인을 믿는다면 안 된다." 타인은 따르라고 그랬지 믿으라고 한 건 아니다 이겁니다. 고깃덩어리를 믿어서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 타인을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타인을 믿어서 깨닫는 게 아니니 타인을 믿는다면 바로 도깨비장난과 같고 그건 귀신 놀음밖에는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예수께서도 자기네들이 각자 모두 잘 알아들을 줄 알고 "바로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귀신 놀음이요, 도깨비장난이니라." 이렇게 말했을 텐데 말입니다. '각자'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전부 예수만 찾는 거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아야, 영을 알려면 영이 돼야 영을 알죠? 영세계에 가려면 내가 영세계에 들어가야 영세계를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수많은 일체 만물만생을 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가 않고, 일체 만물만생을 다 꺼낸다 하더라도 줄지 않는다. 그 가운데에 그대로 내 마음 쓰는 게 법이니라." 하셨습니다. 마실 수도 있고 꺼낼 수도 있고 두드러지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그런 것과 같이, 예수도 그랬겠죠. '너를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믿지 않는다면' 했으니 그 '나'가 '각자 나'라고 한 소린데 잘못 들어서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랬을 리가 없죠.

하여튼 여러분이 모두 지금 이 나라에 태어났으니 이 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으로서 잘 이끌어 가야 하고 발전이 되더라도 진실하게 발전이 돼야 하고 진실한 국민이 돼서 또 자녀들도….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아이, 학교를 안 가고 온통 나가서 자고 나쁜 사람들에게 모두 얽매여서 다닌다고 울고불고 어머니들이 그러는데 내가 그랬죠. "아무리 요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하면서 때리고 그래도 안 된다, 그건. 마음에서 고장 난 거니까 마음으로 고쳐야 되는 거지." 하고요. 육신이 들어오면 "요놈의 자식아, 너는 배울 시기에 배우지 않고 요다음에 깡통을 차련?" 하고 그냥 뭐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모질게 그렇게 마음먹고 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 하나 먹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어린애를 뱄어도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별소리 다 하고 별 마음 다 갖고, 융통성 없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러 줬죠.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부모 자식이라는 가설이 돼 있으니까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걔 마음에 밝게 불이 들어오게 할 수 있잖아.' 하고 진짜로 거기다 놔라. 그러면 바로 불이 들어 올 수 있다. 그러면 저절로, 제 발로 그냥 들어오게 된다." 하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실천해 본 사람이 "스님, 참 고맙습니다. 아유! 어저께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는 김치 항아리를 닦는데 아들이 다가오더니 그냥 "어머니, 힘드시죠? 내가 좀 들어 드릴까요?" 하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부터 그렇게 좋아지더랍니다. 100% 효자는 되지 않았어도 반 이상, 삼분지이는 효자가 됐답니다. 그러니 효자가 되기 이전에 자기가 잘돼 나가려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 같이 불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 스위치도 그쪽과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누르니까 함께 불이 들어온 거죠. 만약에 가설이 안됐더라면 하나도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과 같이 어떤 자리이건 나라의 소임을 맡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일을 해야 일하는 능률도 오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다 살리는 힘이 될 겁니다. 내가 했다 네가 했다 함이 없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광대하고 무변해서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그렇게 어떤 곳의 머리 깎은 스님네들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집이 허물어지면 주인이 고치지 집이 서둘러서 고칩니까? 아, 생각들 해 보세요. 주인이 고치죠? 그러니까 나의 집합소인 껍데기, 내 집이 헐어지고 어디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집에서 고장 난 건 그 속에서 작용해 주는 바로 자기네들이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은 것도 그 속에서 지은 거니까 허물어지는 것도 그 속에서 고쳐야죠? 이열치열이란 말 있죠.

그러니 여러분도 앞날을 위해서 정신계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정신계와 물질 즉, 정신계와 이 몸이 둘이 아니게 움죽거린다는 거를 진실히 믿으시고 자기 몸, 자(子)는 보이지 않는 정신계의 자기 부(父)를 진짜로 믿어서 둘 아니게 평등공법을 쓰신다면 아주 좋으실 겁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세세생생을 거쳐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 마음공부 하다가 그 몸을 벗는다 하더라도 그 차원은 그대로 가지고 요 세상에 다시 와서 또 공부하실 겁니다. 이 공부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서, 이 세상에서 살 때 원수를 지고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혼란을 일으킬까 봐 아예 까맣게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우주 한울에서, 즉 도리천에서, 즉 말하자면 열쇠를 주는 것이 바로 해인(海印)을 받는다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일체제불의 마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체 모든 중심에서 증명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대로 자기 정신계의 자기 주처를 진짜로 믿고,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세상을 한번 새롭게 걸어 보세요. 그럼 실험도 되고 체험도 되고, 눈이 밝아져서 바다를 내다볼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 물고기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아하! 자동적으로 그 물 밑까지, 태양력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물 밑까지 살리게 하기 위해서, 또 먹을거리를 주기 위해서 물 밑까지 파도를 치고 그냥 돌게 하는구나.' 하고 알게 될 겁니다. 파도가 치고 온통 모두 물이 뒤집히면 '왜 그런가?'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고생하는 것이 고생을 하다가 보면 느끼는 점이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는 그 고생한 게 계기가 되어서 그게 참 큰 재산이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요것은 말로는 어떻게 다 할 수 없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 보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체험도 되시고 또 자기가 진짜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기는 의식적으로 그냥 사는 거니까요.

※위 법문은 1996년 1월 21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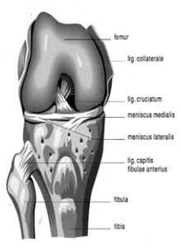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004-중-1788호 〈광고〉

퇴행성 류마티스 –
관절염 한방(韓方)치료한다.

중정한의원 왕 원장은 통상관절염이란 관절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되어 뼈의 기형화를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왕 원장은 "한방 치료를 통하여 관절염의 고질인 통증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한다."

◆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나이가 듦에 따라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쇠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 안의 연골(소위 말하는 물렁뼈)에 주름이 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성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써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에서든지 발생 할 수가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후 5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로 침범하는 관절 부위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무릎, 발목 같은 관절에 많이 오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무릎 혹은 발목, 척추 그중에서도 요추 같은 체중이 실리는 즉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관절에 주로 나타난다고 왕 원장은 말한다.

◆ 관절염 통증 치료한다.

관절염은 그 정도에 따라 경증(輕症), 중증(中症), 중증(重症)으로 나뉘며 초기관절염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이고 중기에는 관절 주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은 심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면2일~3일간 지속된다. 말기에는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관절 모양 자체의 변형이 유발되기도 한다. 왕 중권 한의학 박사는"한방 관절염 치료를 통하여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밤에 고통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관절의 상태를 되돌리는 데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의 경우 1~2개월의 한방치료로 가능하며 중증(中症),중증(重症)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중정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경희대 외래교수)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

(社)大韓護國佛教 彌勒禪宗
종도모집안내

대한호국불교 미륵선종은 중국 숭산 소림사에서 禪의 初祖이신 達摩大師의 法脈을 **소림사 釋永信 방장으로부터 전법 수계받은 제34대 제자 釋延和 총무원장**께서 창종하신 종단으로 한국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종풍을 청정케하고 禪花를 꽃피우고자 분연히 일어선 종단입니다.

이에 뜻을 함께하실 종도들을 모집합니다.

총무원장 德山 釋延和



△ 총본산 용화사

총본산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 2리 산 247번지 미륵산 용화사
전 화 : 033)765-0122(스님), 761-7008
02)766-6800 / 011-285-6800
인터넷 : 용화세계 / www.yb108.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 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5면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수련이 편안하고 회복이 간편한
선관단식
www.zenfast.com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055)834-1115
016-849-3858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정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명예)종교철학박사학위취득
• 학위 : 미국 종합대학교
• 자격 : 스님, 목사님, 종교인
• 서류 :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사진 4매
상담전화 : 010-9945-2030

디스크, 오십견,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문의바랍니다
미타사 청암 혈 도술원
053)622-0076

법회를 주관할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사주,명리학 잘하시는분
▷경기도 안산
010-6328-3955

부전(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02)387-3216
011-9782-3216

오래계실
부전스님
모십니다
051)256-348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농사가 가능한 부부도 가능)
031)335-2576
011-270-267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65세)
▷보시금 상담후 결정
010-3188-510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김포
010-9469-662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대구시 동구 봉무동 196번지
개원사
053)981-0664
053)981-0995
016-515-0664

행자스님 및 처사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팔공산 약사암
053)851-108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대)
▷김해지역
055)333-070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6-9697-222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칠곡
011-9394-0016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합천 청강사
055)932-5706
016-9506-570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대구근교의 천년고찰)
017-803-020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043)643-4733
019-540-745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지역
011-527-590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포항
010-7192-5262

역 학 공 부

• 사 주 초 급 : 월요일 18:30
•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주역, 풍수금낭경, 마의상법
수요일 18:00 수강생 무료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직강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kbs.cc (사주 전과정 완성까지 45만원)
풍수,관상,육효,자미두수,수상 / 수료증 자격증, 졸업생 재택근무가능
한국역학협회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02)2264-0258

탈 종 공 고

• 성 명 : 백련사
• 주 소 : 울산시 중구 다운동 511-6
• 대표자 : 청학(김종호)
신도회장 : 안나희
부 회 장 : 김순덕
총 무 : 곽영심
감 사 : 최영자
재 무 : 이종오
이 사 : 최성희

신 도 일 동

상기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주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만세력 5초이내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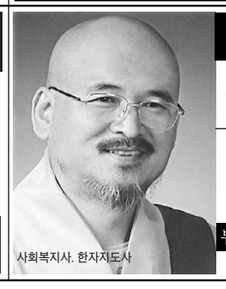
易) 정통 命理學 (學
四柱 비법완성
命理를 완성코져 하는 분
전문가를 위한 學堂
命理學의 모든것
정통교재-명리학 비전
명리학 비결
四柱 비법완성 교재(책)
각권, 삼만원
明陽 命理學堂
인천 032)330-4684 / 032)503-4684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새법요집,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발 로 해

(특수기능성 두한족열 양말)



발로해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절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 참선, 명상, 성지순례, 등산, 운전, 고시수험생)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 독소, 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 보들보들, 보송보송 100%보장!

한국인의 희망 KBS (생로병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행복한오후)출연
SBS스페셜 (0.2평의 기적)출연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등 기사 다수
특별판매가 : 2만원 (배송은착불)

오! 쌀스연喜
주문처 :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원주생식 2개월분 80,000원
원주발아생식 2개월분 80,000원
원주참생식 2개월분 90,000원

원주흑선식 2개월분 90,000원
히말라야 석청 1kg 500,000원
원주장류 ▸원주청국장환(1kg): 25,000원 ▸원주청국장분말(1kg): 20,000원

무상사 소비자상담실 대리점 모집 (053)958-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 무상사)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새해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크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드리며
2008년은 더욱 크신 기도의보시공덕으로 가정이 늘
번창 하시고 행복 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늘
의지의 열정을 갖고
일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의
행복한 성혼을 이루 십시요.

2008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휴대폰 : 011)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무료개방체험

황토와 산야초(야생화)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소승은 용맹정진 기도로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본 도량에 **황토찜질방과 좌욕방**(산야초 및 야생화 30여종)을 마련하여 심신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과 함께 하고자 **무료 체험방**을 개방합니다.

또한 도량내에 지하암반층에서 솟는 **맥반석수**는 감로수로서 심신의 건강을 지켜 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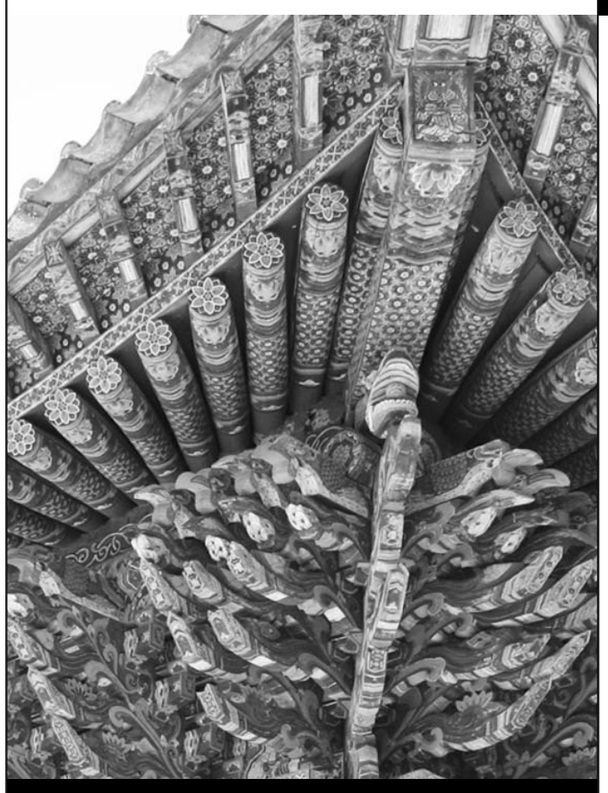
(홈페이지 : 검색창에 불토사 라고 치세요!)



약사여래 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불토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356-3번지
종무소 전화 : 033)343-0103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억7천

- 위치 : 서울외곽도시
- 법당 : 30평
- 요사 : 80평
- 부지 : 620평
- 가액 : 43억(대금분할,지급가능)

- 위치 : 경북
- 법당 : 35평
- 명부전 : 25평
- 요사 : 70평
- 부지 : 4,500평
- 가액 : 15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임법당안내 (30년생)

- 위치 : 부산 범일동
- 평수 : 120평(시유지)
  건물 스라브 약30평(등기필)
- 법당 : 12평
- 요사 방 3칸
- 주방 및 욕실 최신시설
- 정남향 전망 최고 뒷산 접
- 가액 : 9500억원

- 위치 : 남쪽 바닷가 진해
- 부지 : 1500평(주거지역)
- 법당 : 목조 43평(3포 5포)
- 지장전 30평, 요사채40평, 산신각5평
- 공양간45평, 대종각, 사무동(2층) 40평
- 버스진입 가능, 뒤편에 산세 아주 좋음
- 정남향. 탁트인 바다전망
- 전통 사찰 최고의 도량
- 가액 : 15억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근교 낙동강이 보이는 사찰 터 28,000평(당 1만원) "급"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부지 : 7천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39억

*도심부근큰가람가능 (법당+대지300평)9억

- 위치 : 기장 월내
- 대지 : 1,000평
- 법당 : 45평
- 요사 : 50평
- 가액 : 18억

*교통좋은 근교 신축사찰

- 위치 : 청송 보현산
- 부지 : 1,4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20평
- 가액 : 7억

*기가막힌 계곡, 버스진입

부산 영남지방 풍수전문사찰컨설팅(양도 양수 하실 스님 상담환영,절대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세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 평수 : 1,200평
- 법당 : 전통사찰형식(내9포, 외5포), 경내석굴있음
- 요사 판넬건물 3동
- 국도2분거리, 산속 고속도로 5분거리
- 답사 후 가격결정
- 산세 좋고, 교통편리함
- 가액 : 9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9220-4305

사찰 · 사찰터 전문안내

(대구 · 경북권)
011-528-825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평수 : 108평(건물 3층 전체사용) 옥상 사용가능
- 법당 : 삼존불, 약사불, 후불탱화, 약사관음탱화, 신중탱화, 지장호신불 78불, 각 에어컨 2대
- 스님 서재방, 종무실, 대중공양실, 방사 2칸, 후원 5평
- 각 방마다 전기판넬 설비
- 시설 무 모두 A급
- 현재 불교대학 운영중
- 시설비 5천만원, 보증금 절충가능

010-2039-5288

사 찰 안 내

- 위치 : 노원구 상계역 부근(4호선)
- 평수 : 34평
- 2층 법당, 주지실
  3층 방3,주방,세면실
- 보증금 11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1-888-0130

사찰(급)안내

- 위치 :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의정부 경계)
- 평수 : 430평(2층 건물)
- 1층 : 종무실, 주지실, 공양실, 방5 / 2층 : 대웅전
- 별채 43평 건물
  위패당 및 영단
- 가액 : 12억5천만원(절충가능)

010-9757-724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팔공산 자락 (파계사 근교)
- 대지 : 430평, 법당 : 20평
  요사채 : 20평, 별채 : 40평
- 삼존불 모셔져 있음
- 가액 : 6억 5천만원

대구시내.근교사찰(터)

- 가액 : 2억 5천 ~ 20억
  평수 금액 다양
- 사찰전문가와 친절상담

019-534-7239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시내
- 평수 : 종교용지 438평
  법당 8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칠성각
- 조계종 비구니 암자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개인사찰
- 가액 : 2억 3천만원

011-9581-604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남산동
- 평수 : 50평
- 도시가스사용,
  시설완비(시설최상급)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 스님 개인사정으로 급안내

016-271-25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
- 평수 : 대지 176평,
  밭 790평
- 건물 시골 촌집 폐가
  전기수도 차량진입 할 수 있음
- 산세 좋고 경관수려
- 가액 : 1억 3천 500만원

011-594-152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강남 논현동 (2호선) 2번출구
- 평수 : 30평
- 2층 법당, 영가단, 거실, 주지실, 공양간, 세면실
- 보증금 2천만원, 월150만원
  시설비 1600만원
  (꼭 필요하신분 절충가능)

011-545-506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엄마손백화점 앞 2층 60평
- 주차완비
- 방2, 주방1, 에어컨 3대
- 삼불, 산신탱화, 신중탱화
- 보증금 5천만원,
  관리비 포함 월 220만원
  시설비 5천만원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010-3088-3133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
- 평수 : 대지 176평,
  밭 790평
- 건물 시골 촌집 폐가
  전기수도 차량진입 할 수 있음
- 산세 좋고 경관수려
- 가액 : 1억 3천 500만원

011-594-1526

토 굴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도동 (팔공 IC 3분 거리)
- 단독 독립주택 임법당
- 법당, 방, 주방, 화장실 총 30평
- 가액 : 5천만원

016-813-740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제주시 외도 1동 부영2단지. 2천세대 대단지 앞
- 굿당으로 최적지
- 법당 15평, 요사완비
- 주차공간 300평 및 채소밭으로 활용가능
  시설비품 집세 합 950만원

017-393-1127

부산 대 사찰 안내

가액 : 12억
010-9630-0937
011-563-1545

토 굴 안 내

- 위치 : 성주군 대가면 대천리
- 347㎡(약107평)
- 비구니에게 적합
- 가액 : 1,900만원

053)942-3478

포 교 당 임 대

- 평수 : 40평 (최고요지)
- 위치 : 울주군 온양읍 재래시장 맞은편 2층
- 삼존불, 탱화
- 권리금 1300만원,
  전세 500만원, 월 30만원
- 교통편 : 재래시장 앞 버스정류장

010-6665-6990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중산리 방면
- 대웅전, 산신각, 용왕당, 요사채, 친견실
- 가액 : 2억(절충가능)

011-863-0622

30년 서울도심 포교당

- 서울 중심에서 30여년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인연을 찾습니다
- 4층 건물의 3-4층 (각 60평)
- 시설 최고 (진신사리 봉안)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7339-868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영해
- 법당, 삼성각
- 대지 75평
- 시내 5분 거리, 바다 10분 거리
- 즉시 법회 가능, 조용한 수행처
- 가액 : 7200만원(절충가능)

054)787-1935
016-677-193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안양 평촌 롯데마트 근처 (아파트단지 인접)
- 8층 건물중 5층 ● 60평
- 법당, 공양간, 주지실, 동불, 후불탱, 신중탱, 인등 등
- 시설한지 2개월
- 유학관계로 급 안내함
- 보증금 1천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절충 호조건 양도

010-3130-055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구포시장부근
- 3층 50평
- 법당, 방3, 주방, 거실
- 후불탱화, 삼존불
  스님 즉시법회 가능
- 전세 15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약간
- 스님 사정상 급 안내함

017-571-5599

도심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송림동 부근
- 보증금 1,000만원 50만원
- 3층 건물에 3층, 옥상사용가능
- 60평-방3개 35평,법당 25평

011-9845-893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감전동
- 3층 45평. 대로변 요지
- 삼존불, 약사, 천수천안 각단 탱화, 소불 108불
- 시설완벽,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51)322-2727
010-3007-5235

사 찰 안 내

- 대구 팔공산하 청정도량터 6000평, 3000평 (필요시 분할 양도도 가능함)
- 대도의 꿈을 펼칠 창건불사 인연자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취득 기회를 드립니다.
- 전기, 암반수 및 사찰허가 필
- 가액 : 답사 후 결정
  꼭 하실분만 주인직통

010-4512-081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장
- 총평수 : 60평
- 법당30평, 방2, 주방 겸 공양간
- 보증금 2천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500만원
- 가액 절충가능

010-9755-228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탄천면 삼강리
- 건물 4채
- 3천만원
- 긴급안내

011-602-4069

토굴 터 드립니다

- 위치 : 충남 금산, 경북 봉화
- 욕심없이 수행정진 하실분
-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1-401-530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옥열리 구산마을 125-1번지
- 법당 : 건평 60평(다용도실 10평)
- 요사채 : 슬라브 건물 30평
- 창고 및 화장실 18평, 주택 12평
- 총 건평 130평, 대지 605평
- 가액 : 2억 8천만원

011-836-1829
010-3351-182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경기도체육관 앞
- 대지 : 45평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10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500만원(가격절충)
- 시설 A급, 즉시법회가능

011-9762-2286

토 굴 터 안 내

- 위치 : 강원 주문진읍 바닷가 3분 거리
- 건평 약20평
- 주차가능, 텃밭있음
- 전세 800만원,
  월 보증금 500만원, 10만원

033)661-2915
011-402-166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MBC옆 도로변
- 미니 2층집
  1층 : 방3(법당, 거실, 주방)
  2층 : 방1
- 주차 2대 가능, 화장실, 별채(방, 다락)
- 평수 : 57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즉시법회가능

011-9279-3628

대형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포교의 중심지 큰 대로변, 부산진 지하철역 부근 시내버스 각 노선 정류장 앞
- 평수 : 약 85평, 4층건물에 2층
- 법당 약20평,방2,주방,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약40평
- 위치가 좋아 불교대학, 선원 등
- 약사여래 삼존불 모든시설 완벽,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보증금 2천만원, 월180만원 (조정가능)

010-2563-139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지하철 4호선 길음역 4번출구에서 1분거리
- 3층 법당 2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

011-358-4252

사 찰 중 개

- 위치 : 경기
- 부지 : 1,000평
- 법당 : 35평 목조
- 요사 : 30평
- 가액 : 9억

- 위치 : 동해시
- 대지 : 90평(200평)
- 법당 : 22평
- 요사 : 30평
- 가액 : 9천(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평수 : 약 250평
- 대웅전 25평, 삼성각 6평
- 요사 30평, 주지실 종무소 6평
- 전세 4천만원, 월 30만원
- 사찰규모 완벽함

055)342-6341
011-864-6696

어린이집(급)안내

- 가액 : 3억 5천만원

011-9379-0591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대 형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포교의 중심지 아파트 밀집지역 (대도로옆, 전철역 입구)
- 평수 : 150평
- 법당, 요사, 주방 등 현대식 최신식 최상급시설 냉,난방 등 일체 시설 완비
- 보증금 1억, 월 200만원 / 시설비 답사후절충
- 신축불사 관계로 급 안내함

011-594-152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 (시립미술관 지하철 2번출구앞)
- 평수 : 66평 (법당,방,욕실,공양간,창고) 34평(옥상,잔디,야외법회가능)
- 보증금 5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3천 500만원
- 특징 : 즉시법회가능,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0-6353-4299(주지)
010-9288-4199(부전)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0-6304-5998

포 교 원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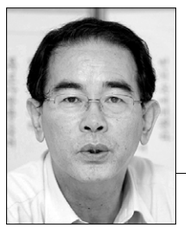
- 위치 : 경기도 일산
- 평수 : 총60평, 법당 35평
- 특징 : 연등 500개, 영가등 250개, 인등200개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월90만원(조절가능) 시설비 : 1,000만원

031)911-98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왜관 낙동강변 동향
- 부지 : 800평, 공유지 500 여평 활용
- 법당 : 목조단청 10평, 임법당 35평
- 요사 : 24평(2층), 부속건물 40여평
- 교통 : 왜관 10분, 대구 30분 거리
- 특징 : 강변고절처로 기도처 최고
- 용도 : 도시인근 포교도량 최적지
- 용처 : 평탄하여 노후생활 최적지
- 환경 : 경관도 좋고 도로포장 완료
- 가액 : 3억 2천 5백만원
- 사진 : 사찰넷에 첨부파일 있음

010-4600-0408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불자 세상보기

성 태 용
건국대학교 교수

대통령이 바뀌면 경제가 살아난다?

대통령이 바뀌면 경제가 살아난다? 무슨 미신인지 알 수가 없는 소리다. 요즈음 경제라는 것은 한 개개인의 소신이나 식견에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 자체가 엄청나고, 또 전문인과 기업가의 총체적인 노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다. 어찌 한 대통령의 뜻에 의해 그리 쉽게 살아나고 죽고 하겠는가 말이다. 과감한 실천력이 돋보이는 대통령이란 것이 나쁠 것은 없지만, 그 실천력이 쉽사리 경제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스운 일일 것이요,

또 그렇게 한 개인의 뜻에 의해 쉽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한 개인의 뜻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경우, 그 뜻이 바르고 목표 설정이 정당하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그러나 만약 반대라면? 엄청난 추진력과 결단성을 가지고 남들이 뭐라 해도 듣지 않는데, 그 방향이 그릇되다 하면 이 또한 얼마나 큰 비극인가?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우려 또한 크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공업이라 하지 않았던가? 우리가 이룩한 세상은 우리들의 공업이다. 우리들이 모두 이 공업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고, 함께 바꾸어 나가자는 분명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한 개인의 힘에 의존하려 하다, 만약 그 개인이 잘못 판단하고 움직인다면 어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하기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 우리의 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고, 그 운명에 휩쓸리는 온 국민의 고통을 그렇게 한마디로 "우리의 업이니 달게 받아들이자"라 할 것인가?

우리 역사로 보면 결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대하여, 그러한 인물을 뽑은 것이 우리의 결정이요 우리의 업이라고 겸허하게 반성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국회 의정활동 가장 열심히 했다고 평가되는 국회의원을, 지역 경조사에 열심히 참여 않고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키고….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자질만을 문제 삼아온 것이 우리들의 행태가 아니었던가 아프게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정치를 용인, 아니 조장한 것이 우리들이 아니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지지 여부를 떠나서 하는 말이다. 대통령이 잘못 뽑혔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고. 그러한 대통령을 선출한 시대적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판단을 무시하고픈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한 대통령을 선출한 만큼, 그러한 대통령의 장점이 제대로 작동하고 단점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깨어있는 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 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 그렇게 진정 올바른 방향성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이 될 것이다. 그가 가진 장점이 오히려 비극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고, 그 바탕 위에 그의 장점이 빛을 발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뽑아 놓고는 나 몰라라 하곤,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행태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져야만 정치가 올바로 된다는 바른 관점에 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반 우려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걱정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다. 그건 바로 이야기 처음에 꺼냈던 '경제'라는 놈에 대한 지나친 강조 때문이다. 오래 전에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접어두고 오로지 경제에만 매달렸던 시절이 다시 오는 것인가? 우리 경제가 과연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에 있는 것인가? 이제 문화의 시대라고 하는데 과연 또 얼마나 경제 타령에 진정 중요한 가치들이 무시되고 망각될 것인가?

단지 기우로 끝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너무나 경제 경제하니 이런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제발 좀 진중하게,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바로 정하고, 뚜벅 뚜벅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정치행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㊻ 그 곳에 계신 부처님

2007년 12월 31일, 사형수 몇 사람이 무기로 감형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10여 년간 진심으로 참회하여 새 사람이 된 불자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무기수로 감형된 한 불자의 시입니다. 이 시들은 그가 여전히 죽음을 대면하고 있던 시절에 지은 것입니다.

작은 기도

제가 밟는 땅과 숨 쉬는 공기에서
당신의 지혜를 느끼게 하시며
마음을 아래에 두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평등심을 갖게 하소서.
다른 이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게 하시며
세상 만물 중 작은 하나임을 가슴깊이 느끼게 하소서.
삶 속에 고통의 바다를 만날 때
당신의 고행을 생각하게 하시며
피하기 보다는 순응케 하시어
스스로 졌던 짐을 스스로 내려놓게 하소서.
걸음걸이 하나에 수많은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내 몸같이 아끼게 하시어
함부로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한마음 거둘 때가 오면 맑은 정신으로 그 때를 맞게 하시어
한순간 낙엽이 떨어지듯 세상에 인연이 다한 날
선한 눈매 선한 웃음으로 그 곳으로 갈 수 있게 하소서.

그 곳에 그 사람이 있다

모두가 외면하는 그 곳에 그 사람이 있다.
몸도 마음도 쇠사슬에 묶여
절망의 눈물 흘릴 때,
가만히 손수건 내민 사람이 있다.
내가 어둠이었을 때 자신의 빛이 죄인양
스스로를 꺼버린 한 사람이 있다.
세상의 돌팔매에 멍든 가슴을 감출 때
자신의 가슴을 먼저 보여준 사람이 있다.
내가 삶을 낭비하여 끝을 얘기할 때
따스한 눈으로 시작임을 말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
고통 속에서 증오를 떠올릴 때
더 가까이 다가앉는 사람이 있다.
그는 바람처럼 온다 아무런 얘기도 없이,
원래 있던 것처럼 그렇게 찾아온다.
그는 물같이 스며든다 아무런 소리도 없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스며든다.
고통과 절망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있다.
바람이 되어 물이 되어, 그 곳에 그 사람이 있다.

|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고통과 증오와 업이 사라지는 날까지 항상 그 곳에 둘 아니게 자비로서 함께 하시며 지옥중생들을 이끌어주실 모든 부처님들의 은혜에 엎드려 감사 올립니다. |

불자의 눈

'매체 감시' 이대로 안 된다

방송매체의 불교폄하는 끝이 없다. 지난 12월 29일 SBS가 방영한 '이경규 김용만의 라인업'(이하 라인업)은 산사의 템플스테이가 소재였다. 연말연시의 들뜨기 쉬운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한해를 차분하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이 제작의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방송을 본 시청자들, 특히 불자들은 불쾌함과 분노를 터뜨렸다. 출연자들의 말과 행동이 산사와 스님에 대해 지나치게 희화적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요즘 방송국마다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은 단연 오락물이다. 대부분의 오락프로그램은 '잘 나가는' 인기 연기자들이 말과 몸으로 청소년과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끌어 들인다. 이 같은 프로그램이 산사를 배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은 일견 신선하고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산사와 스님들이 배경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신중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이번 '라인업'의 경우 사찰측이 제작진과 조금이라도 의견을 나눴는지 의심스럽다. 사찰측이 연기자들의 언행을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지나치게 희화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더라면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방송 후 불교계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아무런 비판도 가하지 않았다.

방송 등 매체에 대한 감시기능이 거의 없는 불교계의 현실을 반성해야 할 때다. 지금 불교계는 새로 들어설 정부에 대해 종교편향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지 않은가?

지적재산권, 확실한 교육 필요

그간 불교계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무관심했다.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지적재산을 훨씬 다양하게 소유하고 있고 그에 해당되는 작업도 많다. 사찰 건물이나 예경의 대상으로 조성되는 회화와 조각 등이 다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불교계는 그간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공유의식이 형성된 탓에 개별적인 지적재산권 주장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바뀌어야 한다. 건축 조각 회화 음악 무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저작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불교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자의 모든 작품은 종교의 범주 속에서 예술성과 신성성이 함께 인정된다. 그래서 법적인 보호의 영역도 분명해야 저작물의 가치가 유지 전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불교문화 지적재산권의 현황과 분석>이라는 책을 펴낸 것은 지적재산권에 다소 무감각했던 불교계에 상당한 울림으로 받아들여진다. 책에는 지적재산권의 의미와 적용 범위 등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책의 내용을 숙지한다면 뜻하지 않는 지적재산권 분쟁에 휩싸이지 않을 것이다. 또 자신에게 부여된 지적재산권의 범위와 가치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차제에 조계종은 이 책을 토대로 전국의 사찰과 스님들에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각적인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주 특별한 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의과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제32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개강안내 1월 18일 10:00~17:00까지

교육과정 매주 금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농협408-01-086128
(예금주 : 임병국)
▶특전 : 전생상담사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수료후 미국최면의과대학 편입학 가능

미국 최면의과대학 객원교수 임재형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치유상담학 박사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국제 공인 최면치료의사(IM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같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 각종 통증해소,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우울증상,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알레르지,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빙의장애 무료상담

한국최면과학원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301
(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
전화 : 042)255-0734~5

謹賀新年 佛紀 2552年

2008년 戊子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법화종

종 정 **성파 대종사**

원 로 원
원 로 의 장 **수봉 대종사**
원로부의장 **오봉 대종사**
의 원 **금파 운명 원광 은파 지우 정수 종파 보명 양운 법진 백담**

중앙종회
중앙종회 의장 **도정**
중앙종회 부의장 **보광 관효**
의 원 **도광 송현 복규 국봉 법원 선파 백봉 광래**

총 무 원
총무원장 **혜륜**
사서실장 **효웅** 종정예경실장 **광덕**
총무부장 **해암** 재무부장 **송현**
사회부장 **일광** 감찰부장 **효천**
의전경호부장 **보성** 총무국장 **지오**
교무국장 **홍선** 재무국장 **천호**
감찰국장 **승헌** 의전경호국장 **청인**

포 교 원
포교원장 **만각**
포교부장 **득인** 교육부장 **석정** 포교국장 **도각**

각 교구 종무원장
경북교구 **혜각** 진주교구 **원봉** 충북교구 **도찬** 강원교구 **암현** 마산교구 **법산**
전라교구 **복규** 동해교구 **국봉** 창녕교구 **법원** 경주교구 **서봉** 김창교구 **근파**
충남교구 **백봉** 제주교구 **광수** 안정사주지

■ 총무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1가 11-73번지 TEL 02)762-2678, 764-2678 FAX 02)747-5044

韓國佛教 圓光宗

종 정 능허 대종사

총무원장 법륜

종의회의장 선진
규정원장 법성 교육원장 법민
문화원장 법원 포교원장 경산

총무부장 진공 기획부장 도현
사회부장 도각 문화부장 도성
재무부장 고담 포교국장 혜암
문화국장 혜지

종정예경실장 도연

강원도종무원장 진각 경기남부종무원장 혜안
경기북부종무원장 진광 경주종무원장 청암
전남종무원장 경진 충남종무원장 보선

■ 총무원 :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91-3번지 TEL 02)802-1740

재단법인 21C 한국불교조계종 등록안내

-. 우주의 섭리는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 부처님의 진리는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비요 연꽃입니다
-. 창종은 창의요, 창조입니다.
-. 종단에 입종함은 진흙속에 연꽃 한송이가 아름답게 피는 것입니다.
-. 종단에 등록하시고, 법적 · 행정적 보호를 받으십시요

총무원장 서보현 합장

구비서류
- 사진 5매(반명함판 3×4)
- 주민등록등본 1통
- 이력서 1통
- 혜택 : 사암등록증 발급, 임명장 수여, 승려증 발급

※기타 자세한 문의는 총무원으로 하십시오.

총무원장 **서 보 현**
- **학력** : 동국대학교 승가학과 수료, 부산 경상대학 경영과 졸업, 동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문학석사 취득,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23대 총학생회장 피선, 인하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정진
- **약력** : 1961년 송광사 출가, 공주 마곡사 교무역임, 설악산 신흥사 교무역임, 팔공산 동화사 교무역임, 두륜산 대흥사 교무역임, (현) 재단법인 21C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경력** : 홍련암, 봉정암 중건 및 범종불사 회향, 팔공산 동화사 통일대불 불사회향, 현풍 유가사 범종각 범종불사 회향, 조계종 9대, 10대 중앙종회 의원

재단법인 21C 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
인천 계양구 오류동 155-2번지
전화 032)518-1588 / 032)554-1080

대한불교원효종

대구교구종무원

종무원장 불은사 서응
종무국장 동인사(안동) 운봉
교무국장 미륵암 보현
재무국장 정현사 진율
사회국장 기원사 두철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519-6
TEL 053)584-9149 /FAX 053)586-0078
H·P 011-525-1717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선찰

만 덕 사

(부산지방문화재 3호 만덕사지)

주 지 금산 박혜명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32-2번지
TEL 051)334-3009

대한불교조계종

화악산 적 천 사

주 지 정 광
신도회장 변숙현
반야회장 정광심
구도회장 황통주

신도일동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1 TEL 054)373-0307

세계불교임제종

자 비 사(慈悲寺)

주 지 지 정

사부대중일동

■ 경남 함양군 안의면 봉산리 60번지

재단법인 금강불교조계종 총무원 겸 제1교구

용 봉 사

총무원장 겸 조실큰스님 석혜명
총무원수석부원장 겸 주지 원각 합장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740번지
TEL 055)642-3869 / FAX 055)649-5974
H·P 010-6666-3869 원장큰스님 010-9244-3358

한국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시청각 학습기기 아이센스 탄생!**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불경 해석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모음

■ **염 송 경** • 반야심경 • 천수경 • 불설아미타경 • 금강반야바라밀경 • 원각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 불설약사여래본원경 • 화엄경 보현행원품 • 화엄경 약찬게 • 초발심자경문 • 무상계 • 의상조사 법성게 • 장엄염불 • 부모은중경 • 백팔대참회문 • 대불정능엄신주 • 지장보살본원경 • 천지팔양신주경 •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 송주편 • 예경편 • 불공편 • 천도재 · 49재편 • 시식 · 영반편 • 장의편 • 점안편 • 이운편 • 의식편 • 기타편

• **제품사양**
컨텐츠 캡션 MP4 재생기능, 동영상 촬영, 내장형 카메라, 녹음기능, MP3, 멀티태스킹 · 백그라운드 음악, 내장 1G 플래시, 외장 2G SD카드 지원, 320×240 TFT LCD 화면, FM 라디오 내장, 터치패드 사용, 게임기능, 전자수첩(전자북, 메모, 스케줄, 달력, 계산기), 영 · 중 · 일 · 한자 전자사전
※영어 · 일어 · 중국어도 함께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하십시오.
도연아카데미 사업본부 책나라 문의 (02)739-7451~2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